Industry p/10
전기차사업 대기업 '뒷짐'

metro
메트로 2015년 5월 6일 수요일 www.metroseoul.co.kr

Today p/22
三人成虎 관우와 이재용

도대체 뭐가 다르지?

범삼성가 남매재벌 신세계 · CJ '비자금 의혹'도 닮은꼴

"회삿돈 600억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

1심 유죄

"법인계좌에서 70억원을 현금화한 뒤 개인계좌에 입금"

?

더 생생한 뉴스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헌법 위 국민정서법, 중국 동포 내몬다

다문화 상생 막는 배타주의, 잇단 흉악 범죄로 촉발

"이제 중국 동포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인 그 이상 이하도 아네요." 중국 동포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지역 주민이 4일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편법보다 국민정서법을 상위에 둔 우리나라 현실이 다문화 상생을 막고 있다.

오원춘을 시작으로 잇단 흉악 범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촉발된 배타주의 기반의 혐오감정, 그들을 향한 우리 국민의 혐오 정서가 날이 갈수록 거세다.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중국 동포라는 점에서 비판 대상은 동포 사회 전체로 확산됐다. 반인륜적 범죄에 '중국 동포'를 향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가 결부돼 여론재판이 맞물린 탓이다.

중국동포에 대한 시선은 첨예하게 갈린다. '함께 살아가야 할 공존'의 시선으로 안관에 힘쓰는 축과 '무단투기·무단횡뇨·무단횡단 등 무질서판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혐오'의 한 축. 그러는 사이 2012년 4월 오원춘 토막살인 사건이 터졌고, 이중적 시선은 한쪽으로 기울었다. 2014년 11월 박춘풍 살인사건, 올해 4월 김하일 시화 토막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혐오 정서는 극에 달했다. 경기도 남부권에서 발생한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이 모두 중국동포의 소행이었다는 보도도 쏟아졌다.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중국 동포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계기다.

실제 범죄율은 어떨까.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작년 치안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범죄자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이는 내국인 범죄율인 4.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끔찍한 범죄가 내국인에게서 더 많이 벌어진 셈이다. 2013년 7월 발생한 용인 모텔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19세이던 심모군이 용인의 한 모텔에서 당시 17세이던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한 후 간음한 뒤 시체를 잘게 썰어 변기로 흘려보낸 엽기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범인인 심군은 여전히 이름도 얼굴도 밝혀지지 않았다.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다. 사형이 구형됐지만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오원춘과 박춘풍 등의 범죄에 '얼굴부터 공개하라', '사형하라'는 여론이 들끓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중국 동포에 대한 배타주의 내지 배제 심리가 불러온 현상이다. 국내인의 범죄를 비교적 개인적 이유로 치부하는 반면 중국 동포가 범인인 경우 사건 자체를 집단적 범죄 성향으로 단정 짓는다. 일종의 낙인찍기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동포들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고립을 부추겨 놓고 그들만의 리그를 비판하는 꼴이다. 유사 사건이 벌어지면 중국 동포들의 우려가 더 깊어지는 이유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국민정서법이 확고한 국내 현실에서 이 같은 조항은 무의미해진 지 오래다.

이들이 고립된 섬 안에서 무법지대를 형성하게 된 데에는 결도는 국가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한 박근혜정부에서 다문화 관련 정책은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 담당 부처는커녕 △부처 간 업무 중복 △지원 창구의 비통일 △전문성 부족 △예산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면서 행정 업무가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는 사이 흉악 범죄는 늘고 중국 동포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더 고립되고 있다. 정부부처의 통합 지원적·효율적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정책의 완원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오원춘사건을 시작으로 잇단 흉악 범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촉발된 배타주의 기반의 혐오감정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

100여명 세워놓고 '국회판 전관예우'

국회 법사위 법인심사2소위 전직의원 새치기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법안 심사를 두고 새치기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법률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법사위 제2소위는 24번째 안건이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순서를 앞당겨 9번째 안건으로 다루어 가결 처리했다. 당일 예정된 안건은 29건으로 제2소위는 이 가운데 10건만을 처리하고 회의를 마쳤다. 회의 마지막에 순서를 앞당기지 않았다면 개정안은 4일 국회에서 본회의에 오를 수 없었다. 마지막 본회의가 6일 열리기 때문이다. 당일 처리되지 못한 법건 중에는 1년 이상을 기다린 시급한 법안들이 여럿 포함됐다.

당시 회의실 앞에는 관련 법안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100여 명의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대기하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실에 모습을 나타내는 순간 하루의 기다림이 무색해졌다. 제2소위 위원들은 허 부위원장이 나타나기 무섭게 법안 심사 순서를 바꿨다. 허 부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냈다. 방통위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기 전의 일이다. '국회판 전관예우'였다.

이날 100여명의 공무원 중 태반이 회의에 참석도 못해보고 시간만 허비하다 돌아갔다. 제2소위 회의장 주변을 모니터한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새치기에 하루 종일 차례를 기다리던 공무원들이 씁쓸해 했다고 전했다. 차관·국장·과장 등 관계자들이 종종걸음 여성기 측부 직원들은 둑하 허탈한 모습이었다는 전언이다.

제2소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24일 회의가 1시간여만에 파행된 후 두 달만에 열렸다. 제2소위는 이날 상정된 법건 29건 중 10건을 심사하고 7건만을 가결했다. 제2소위는 19대국회 들어 1차연도에 54.17%, 2차연도에 57.4%의 법안 처리율을 보여왔다. 이달 29일 종료되는 3차연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제2소위가 법안들의 무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세이기자 [illegible]

위기의 맥도날드 4일(미국 현지시간)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의 스티브 이스터브룩 신임 최고경영자(CEO)는 구조조정을 포함한 회사 회생안을 발표했다. 오는 2018년까지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해 전 세계 가맹점 비율을 현재의 81%에서 90%로 올릴 계획이다. 또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연간 약 3억 달러(3243억원)를 절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급 인상을 요구해 온 맥도날드 근로자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최대 규모의 시위를 벌이겠다고 이날 예고했다. 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건강 인식 악화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 사진은 지난 달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맥도날드 점포 앞 시급인상 시위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0.5%만 추가부담하면 소득대체율 50% 가능"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0.5%만 추가부담하면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공식답변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4일 방송에 출연해 "정부에서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고정시켰을 때 보험료율을 1%만 더 올리면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공식답변이 왔다"며 "현재 보험료율 9%를 10% 수준으로 올리면 1%포인트가 올라가는데 (근로자는) 사용자(정부)와 반반씩 부담하니 0.5%포인트만 추가 부담하면 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이 2배 오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금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연기하고 기금을 영원히 고갈되지 않게 많이 쌓아두는 방식으로 가면 그렇게 올라간다"며 "그런데 이는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뒤의 얘기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을 담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안을 추인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 역사상 국회에서 어렵사리 이런 국가적 현안에 대해 여야 노동계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 최초 합의"라며 "이런 협의 정신을 깨려고 하는 일부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그런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 연장, 정부·여당이 반대

'소멸시효 예외 규정' 이유로 부정적… 日과의 외교관계 우려 제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에 정부와 여당이 반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사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례법은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에 손해배상을 소멸 시효인 24일을 넘겨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대표 발의자는 이 의원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가 소멸시효를 예외로 두는 것에 부담을 느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에 소극적이었다.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며 의견을 밝힌 의원 역시 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는 이례적인 경우라며 난색을 표했다는 전언이다. 심지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외교적으로 좋지 않다는 언급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확히 누구의 발언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가 나서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득에 나섰지만 소득은 없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면밀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진정성을 [illegible] 하려라고 생각하고 법안을 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의원은 특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손해배상 시효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며 "특례법을 통해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제1소위는 6일 원포인트 형식으로 특례법을 재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 4월국회에서 심의를 마치지 않으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될 공산이 크다. 4월국회는 6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2012년 5월 23일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어려움 때문에 상당수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특례법은 소멸시효 연장과 함께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현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지난 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회원들이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족회는 2013년 12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데 이어 추가로 피해자와 유족 [illegible]여명이 참여한 같은 내용의 소장을 이날 같은 법원에 냈다. /연합뉴스

강제징용현장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전범기업이 산업화 주역으로

한국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미적대는 사이 일본은 강제징용 현장을 아시아 산업화의 상징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5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인 큐슈·야마구치 지역의 23곳의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도록 유네스코에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23곳 중 7곳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약 5만7900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강제징용에 끌려가 상당수가 목숨을 바친 곳이다. 일본은 1910년 한국을 병합하기 전으로 기간을 한정해 강제징용 논란을 피해가는 꼼수를 썼다.

강제징용 현장인 7곳은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 기업들이 운영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미쓰비시는 당시 나가사키에서 조선소, 하시마·다카시마탄광 등을 운영했다. 미쓰이는 인근 후쿠오카에서 미이케탄광과 석탄수출항인 미이케항을 운영했다. 일본 근대화를 주도한 야하타제철은 현재 신일본제철이 운영하고 있지만 당시는 일본 당국이 운영했다. 하나같이 큐슈와 야마구치에 산재한 근대 산업시설 중에서도 강제징용으로 악명을 떨친 곳들이다.

2012년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 자료에 따르면 큐슈·야마구치 지역의 강제동원 작업장은 총 845곳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업장은 미쓰비시중공업, 미쓰비시광업, 야하타제철소, 스미모토, 히타치 등이다.

이들은 국회가 2011년 발표한 '전범기업' 명단에도 올랐다. 특히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야하타제철소)은 2011년 5월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기업이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Parents' Day The Heaviest Burden in May

Among the anniversaries in May office workers have chosen Parents' Day as the day when they feel most burdened. The main reason is because of their expenditure. This result was gathered by the Job Portal Website, Job Korea. 85.5% (1457) office workers answered that they feel most pressured on Parents' Day. Followed by Children's Day, Teachers Day, Labor's Day and lastly Spouse Day. Married office workers are planning to spend average of 296,000 won for presents and pocket money for their parents on Parents' Day. Single office workers are planning to spend average of 200,000won. This is the reason why they feel so pressured on this day. Children's Day is not exceptional. According to the survey, office workers are planning to spend average of 500,000won total per person in May.

Chris Kim

"어버이날이 가장 부담스럽다"

직장인들이 5월의 기념일 중 어버이날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 결과다.

5월 기념일 중 어느 날이 가장 부담스러운지를 묻는 질문에 직장인(1457명)의 85.5%가 어버이날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어린이날, 스승의날, 근로자의날, 부부의날 순이었다.

기혼직장인들은 어버이날 선물과 용돈을 포함해 29만6000여원을 쓸 계획이다. 미혼직장인들은 20여만원을 쓸 계획이다. 어버이날이 가장 부담스러운 이유다. 어린이날 역시 마찬가지 이유다. 직장인들은 5월 한 달 동안 1인 기준 평균 50여만원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PAGODA

'디플레 공포' 우려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김하성의
세상보기

우리경제가 내수부진으로 저성장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해 경기 침체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엔저(低) 쇼크 파장이 커지고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경제도 성장세에 제동이 걸려 설상가상이다. 이른바 '레 샌드위치'에 몰려있는 형국이다.

각종 경제지표를 들여다보면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8%에 그쳤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0%대 성장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도 작년 같은 달보다 0.4% 오르는 데 그쳤다. 5개월째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최근의 저물가가 국제유가 하락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어서 아직은 디플레이션을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차례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와 46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에도 부진한 경제지표들을 고려할 때 디플레이션 진입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설상가상 엔저 공포가 우리경제를 짓누르는 최대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주 원·엔 환율은 100엔당 800원대에 진입했다. 800원대 진입은 7년2개월 만이다.

당장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엔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실제로 4월 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8.1%나 줄어 4개월째 감소했다. 그럼에도 무역수지 흑자는 84억6800만달러로 월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39개월째 흑자를 나타냈다.

문제는 내수부진으로 수출입이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데 따른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올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수출전선에 경고 신호가 울린점도 예사롭게 봐서는 안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엔저 현상이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그리스 유동성 위기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엔저 현상은 향후 2~3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져 들면서 올해 2%대 성장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추가 인하, 재정 금융확대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동시에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하락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국장 겸 온라인뉴스부장

케이블 '대출' 광고 규제가 업계 자율성 침해일까?

기자 수첩
김형석
<경제부 기자>

초등학생인 친척 동생이 주말에 집에 놀러와 케이블TV를 보다 대부업광고를 따라 흥얼거리는걸 보고 놀랐다.

이들 광고들은 예전에 유행하던 만화 주인공을 내세운다든지 단순한 멜로디를 반복해 시청자의 눈과 귀를 자극한다. 전화 한통이면 대출이 다 될 것처럼 홍보하기도 한다. 초등학생 아이가 보기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광고카피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36개 주요 케이블채널에서 하루 평균 방송되는 대부업광고는 1043건, 저축은행 광고는 365건에 달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업계의 광고비도 수백억원대다.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의 OK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440억원의 광고료를 지출했다. 이 그룹의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등을 포함할 경우 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SBI저축은행도 지난해 100억원가량을 광고로 지출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 이 같은 대출광고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이 법안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발의한 것.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정치권은 대부업과 유사한 저축은행의 TV광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다.

대출광고 규제가 본격화되자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이같은 방송규제가 있는 나라가 없다며 광고할 권리 자체를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조차 뺏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업계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급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는 유용한 정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똑같은 대출이자에 똑같은 광고를 케이블TV를 볼 때 마다 봐야 하는 시청자에게는 이제 공해일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인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급 ▷안위관리처장 이호연 △2급 ▷미래전략홍보실장 한래호 ▷수재처장 원종철 ▷기후변화사업처장 이능재 ▷문화조경사업처장 김영준 ▷연구개발처장 김진광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원전산업정책과장 박재영 ▷감사담당관 최권헌

■ 보건복지부 △국장 승진 ▷한의약정책관 고득영

■ 한국광물자원공사 △보직 부여 ▷자원개발본부장 직무대리 신기홍 ▷인력개발실장 박병철 ▷에너지사업처장 허경용 ▷해외지원처장 박재식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 소장 김충렬 ▷회계팀장 김상진 ▷노무복지팀장 한종철 ▷우리북한광물협력팀장 전석제 ▷기술지원팀장 박용준 ▷선도기술팀장 김영준 ▷생산기술팀장 강동준 ▷파이낸싱센터 소장 정태현 ▷홍보실 파트장 주훈 ▷기획예산팀 파트장 최광철 △전보 ▷기술검증본부 정사업단장 겸직 박영규 ▷개발기획처장 김사임 ▷역량강화실장 박길현 ▷동반성장실장 정시준 ▷금융관리처장 박재준 ▷공사5년차사업위원회 실무팀장 박문수

부고

▲이은경씨 별세, 박희진(경찰청 사이버안전국)씨 부인상 = 4일 오후 9시4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 ☎ 02-3010-2263

▲이자순씨 별세, 최경환(NC 다이노스 코치)씨 모친상 = 4일 오후 9시 1분, 인천 장례식장 2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 032-543-2444

실물없는 '모바일카드' 등장 초읽기

카드업계, "막바지 작업 박차"

실물 없이 사용 가능한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됨에 따라 카드사들이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카드를 발급,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BC카드는 모바일 단독카드 기술을 개발, 즉시 발급부터 결제까지 테스트 과정을 통과했다.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된 마지막 실전 테스트에서 BC카드 임직원들은 모바일 단독카드의 신청과 등록, 심사, 내려받기, 발급, 결제와 취소, 카드 삭제 등을 원팀이 체크했다.

이는 모바일 단독카드에 대한 여신금융협회의 가이드라인 확정 후 약관 심사가 통과되는 즉시 고객들이 모바일 단독카드를 발급 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BC카드 측은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을 위해 카드사의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허용했다.

모바일 단독카드는 플라스틱 카드가 반드시 필요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스마트폰을 통해 즉시 모바일 전용 의 신용·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다만 모바일 전용카드는 명의를 도용해 부정발급할 가능성이 실물카드보다 큰 만큼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SMS) 등 수단을 최소 2개 이상 활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기존 유심(USIM)방식뿐만 아니라 eSE(스마트폰 별도의 IC칩 공간에 카드 정보를 저장해서 거래하는 방식), HCE(가상 클라우딩 서버에서 거래 시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통신해 처리하는 방식) 등 다양한 NFC 모바일카드를 선보이기로 했다.

이 경우 각기 다른 스마트폰 사양에 구애 받지 않고 모바일 단독카드를 간편하게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BC카드는 5월 중 기존 인기 상품들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모바일 결제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단독카드 신상품까지 동시에 내놓을 예정이다.

BC카드 임직원들이 모바일 단독카드를 테스트하고 있다. /BC카드 제공

BC카드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거래 중심의 결제가 모바일 단독 상품 출시를 계기로 오프라인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BC 모바일 단독상품 출시 시점에 맞춰 기존 플라스틱 카드 발급에 비해 절감되는 비용을 마케팅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카드 역시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준비 중이다.

지난 4월 기준 자사 앱카드 누적 발급 600만장과 회원수 301만명을 돌파한 신한카드는 앱카드와 유심 모바일카드를 모두 발급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으로 모바일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금융 당국의 세부 가이드라인 확정 후 약관심의 완료 즉시 실물 없는 모바일카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오프라인 NFC 단말기에서도 앱카드로 결제 가능한 비자카드의 VCP 솔루션을 올 상반기 중으로 도입키로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침에 적극 부응하는 등 모바일카드 시장에서도 1등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카드사 최초로 모바일카드 1000만 장 시대를 열어 금융권 최고 수준의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신시장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하나카드와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도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모바일카드를 출시할 방침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현재 전용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감독원의 심의와 인프라 확충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온라인 결제시 할인이나 적립 기능을 탑재하고 있을 것"이라며 "모바일만의 특화된 부분이 플러스 알파로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롯데카드 또한 "모바일 신용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미선기자 aliw0202@metroseoul.co.kr

NH농협은행, '위안화 적립식 정기예금' 출시 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중국 위안화를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위안화 적립식 정기예금'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계약기간(1~24개월) 내에는 금액·횟수 제한없이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또 1개월 이상 예치하면 계약기간 만기 전에 자유롭게 찾을 수 있다. 가입고객은 위안화 환율 스프레드의 50% 우대 수수료에서도 30%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주하(오른쪽) NH농협은행장이 지난 4일 위안화적립식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제공

저축은행, 6월부터 최대 1억원 액면 수표 발행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에서도 최대 1억원 까지 비정액권(액면)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이번 액면수표 발행으로 이 한도 내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액수대로 자유롭게 수표를 끊어줄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먼저 오는 18일부터 HK, 모아, 웰컴, OK 등 4개 저축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액면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다.

장당 최고 발행가액은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비정액권 수표 발행은 고객의 비용부담과 불편을 줄이고 저축은행의 편의를 고려해 마련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
TEL (02)721-5800, FAX (02)730-1551
발행인 ...
편집국장 ...
광고문의 (02)721-5851~5
독자센터 (02)721-5800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중소 종합건설사 '반발'

"단체 행동, 종합건설업 등록 반납도 불사할 것"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 범위 확대가 예고되면서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 현행 법체계상 예외로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자격을 한정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규정상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는 종합업체만 원도급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3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에 한해 전문업체에도 원도급을 허용 중인데 이를 1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복합공사를 주로 수행하던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당장 타격을 입게 된다.

5일 대한건설협회는 지역 중소건설업계들을 대표하는 16개 시·도회 회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시·도회장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도회장들은 국토부의 일방적 입법예고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또 협회 집행부가 업역 문제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임직원 탄핵론까지 제기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대규모 항의집회와 함께 건설업 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종합업계가 수주하던 물량을 뺏어 전문업계와 나누라는 점에서 형평성을 상실한 것 아니냐"며 "무엇보다 관계부처 합의 하에 공공공사 입찰시스템을 통째로 바꾼 뒤 관련규정을 고쳐야 하는데 사전 조치도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주장이 시장현실과 동떨어지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회 측은 "종합건설업체도 전문공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업역 체계 때문에 수주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명분으로 내세운 칸막이식 업역 규제 유연화로 발주자 선택권 확대 를 위한다면 업역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하도급 단계 축소를 위한 거래비용 절감은 '직접시공 확대'로 해결할 문제이지 종합·전문 간 업역과는 관계가 없다"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역시 기술개발 유도나 협업체계 강화 등을 통해 추진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가 공사물량 부족,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중소업계 업역 분쟁을 부채질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다"며 "국토부가 소통을 통해 형평성 맞는 정책 추진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육기자 ...

'방카 25% 룰'에 복합점포 보험판매 발목

비은행계 보험사 반발… 공청회 무기한 연기

정부가 금융규제 개혁을 위해 추진 중인 복합점포 활성화 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당초 금융당국은 복합점포에 보험을 포함시키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지만 비(非)은행계 보험사의 반발로 무산된 것.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열기로 한 '복합점포 확대 방안'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이 공청회는 복합점포에 보험을 추가하는 안이 포함됐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달 비은행계 보험사인 삼성·현대 등 비지주 계열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의견을 들었다. 이어 KB·신한 등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임원과도 간담회도 열었다.

간담회 당시 비은행계가 강한 반발을 하면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됐다. 쟁점은 방카슈랑스 25% 룰이었다.

방카 '25%룰'이란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계열 은행을 둔 보험사가 방카슈랑스 시장을 독점할 것을 염려해 보험사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비은행계는 복합점포가 활성화되면 지주계열 보험사가 계열사인 은행을 통해 보험 상품을 독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방카25%룰과 보장성보험 판매제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은행계열에서는 복합점포에 보험이 포함되지 못하는 것이 억지논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생명보험업계는 삼성·교보·한화 등이, 손해보험업계는 삼성·현대·동부 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삼성·교보·한화의 영업수익 기준 시장 점유율은 44.2%에 달한다. 반면 이 기간 은행계인 DGB·KDB·신한·하나·KB·IBK연금·NH농협 등 7개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은 25.6%에 불과하다.

손보업계도 다르지 않다. 이 기간 삼성·현대·동부의 원수보험료(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57.2%에 달한다. 반면 은행계는 KB금융이 최근 인수한 LIG손해보험을 포함하고서도 시장점유율은 16.5%에 불과하다.

은행계 한 관계자는 "이미 보험업계는 비은행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에서도 타 은행계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며 "복합점포에 보험상품을 추가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연금저축계좌 가족결합땐 영화예매권이

NH투자證, 29일까지 이벤트

NH투자증권(대표이사 김원규)은 오는 29일까지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가족결합을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저축계좌 가족결합' 이벤트를 실시한다.

연금저축계좌에 100만원 이상을 거치하거나 적립식으로 10만원 이상 3년 이상 약정한 신규 고객이 가족결합을 신청하면 가족 인원수만큼 영화 예매권을 증정한다.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행사 기간 중 NH투자증권 연금저축계좌에 2명 이상의 가족이 가입한 후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1544-0000)에 가족결합을 신청하면 된다.

/김보배기자 bobae@

ELS 한달새 1조 이탈… 국민재테크 날개 꺾였다

기초자산 급등에 매력 반감
4월 발행잔액 감소세로 전환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자리 잡은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ELS에서 지난달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ELS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는 코스피200, 유로스톡스50(유럽 대표기업 50개로 구성된 지수), HSCEI(홍콩 상장 중국 본토기업 지수·홍콩H) 등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투자 매력이 반감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ELS 발행 잔액은 60조2281억으로 3월 말 보다 1조3179억원 감소했다. 올해 들어 ELS 발행 잔액은 1월 말 58조8853억원, 2월말 59조1143억원, 3월 말 61조546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그러나 이번에 감소세로 들어선 것이다.

월별 발행량을 봐도 투자자들의 ELS 시장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다. 4월 7조6625억원이 조기상환(6조6561억원) 또는 만기상환(1조64억원)된 가운데 6조6767억원 어치의 ELS가 새로 발행돼 신규 발행액이 상환액보다 1조원 가까이 적었다. 월간 기준으로 신규 발행액이 상환액보다 적은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는 지수가 계약 시점보다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연 5~9% 정도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 ELS의 주종인 원금비보장형 지수형 상품은 대체로 코스피200 지수, HSCEI 등이 가입 시점보다 40~50% 이상 폭락하면 그에 비례해 손실이 나게 설계돼 있다.

최근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올라갔다는 점을 감안해 재간접 펀드처럼 연결성이 높은 상품으로 옮기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통 조기상환에 성공하고 나면 다시 ELS 상품에 재투자하곤 하는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녹인(Knock in, 원금손실가능 구간) 가능성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커지자 증권사들은 원금보장형 ELS와 녹인 가능성을 대폭 낮춘 ELS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고객 이탈 방지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ELS의 위험적 측면을 보완한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의 일일 거래대금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지난달 30일 사상 처음으로 100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ETN 거래대금이 101억70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11월 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10억1600억원 대비 10배 증가했다.

거래소 측은 "증시 상승과 함께 ETN 거래대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mj@

서울 아파트 옥상, 초록빛으로 물들다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에 거주 중인 김모씨(37)는 최근 식료품 비용이 줄었다. 아파트 옥상에 조성된 텃밭에서 채소와 과일을 직접 재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옥상 텃밭을 이용하면서 그간 데면데면하던 이웃 주민들과도 친해졌다. 삭막한 도심에서 자녀들이 자연을 느끼게 된 점은 덤이다.

한신·반포본동아파트 등
텃밭 만들고 상추·고추 심어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앞장

옥상 텃밭이 서울 시내 아파트를 녹색으로 물들이고 있다. 가족·주민 단위를 비롯해 지자체 역시 옥상 텃밭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한신아파트의 '한신에코팜'은 옥상 텃밭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2012년 서울시 아파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아 회원 30명으로 1동 옥상 600㎡에 농장을 만들었다. 이어 2012년 하반기 노원구의 마계 지역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2동에 220㎡를 추가 조성했다. 텃밭은 공동경작구간과 개별경작구간으로 나뉜다. 연 2~3회 공동경작구간에서 수확된 생산물을 전 주민과 나누는 행사를 연다.

서초구 반포본동아파트는 아파트입주자지원봉사회 주관하에 매년 봄·가을 '친환경 상자 텃밭 모종심기'를 개최한다. 옥상 상자 텃밭 1000여개를 주민 1인당 3상자씩 분양해 고추, 상추, 토마토 등의 모종을 심는다.

성북구 성북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노원구 중계 청구 3차 아파트 등도 옥상 텃밭 사업으로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옥상 텃밭은 주민들에게 1년 단위로 분양된다.

친환경 옥상 텃밭에 대한 관심이 높자 애초에 이를 조성해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아파트 옥상 텃밭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제공

코오롱글로벌이 성북구 장위뉴타운 2구역에 공급하는 '꿈의숲 코오롱하늘채'는 경로당과 보육시설 옥상에 텃밭을 만들었다.

지자체 등 정부 차원에서도 도시농업에 관심을 기울여 늘리고 있다. 서울시는 올 초 '2015년 서울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내놓고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 옥상 텃밭 조성을 장려하고 있다. 총 사업비 11억6300만원을 들여 약 30개소를 선정하여 텃밭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정원기자 garden@

삼성 LCD TV, 글로벌 지배력 '흔들'

1분기 점유율 4%P 하락
차세대 TV 개발도 숙제
中업체, 자국서 추격 시동
기술·가격 경쟁력 위협

삼성전자의 액정표시장치(LCD) TV 시장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점유율(이하 판매량기준)이 대폭 떨어지며 20%선을 위협하고 있다.

5일 시장조사업체 위츠뷰(WitsView)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15년 1분기 글로벌 LCD TV 시장 점유율은 20.4%다. 이는 전 분기(24.6%)보다 4.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삼성전자의 2012년과 2013년 연간 점유율은 각각 21%, 22.8%였다.

이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 LCD TV의 판매량은 5140만대로 지난해 4분기(6720만대)보다 23.5% 감소했다. 그러나 주요 업체 가운데 점유율이 대폭 하락한 것은 삼성전자와 소니 뿐이다. 소니는 지난해 4분기 3위(7.3%)에서 올해 1분기 5위(5.6%)로 추락했다.

LG전자가 올해 1분기 0.1%포인트 떨어진 2위(14.6%)를 지킨 가운데 중국업체들이 점유율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TCL(5.7%→6.9%)이 3위, 하이센스(5.4%→6.4%)가 4위에 자리했다. 스카이워스(4.9%→5.3%)와 창홍(3.9%→4%)도 지난해 4분기 보다 점유율을 늘렸다. 중국 업체들은 춘절(春節·중국의 설) 연휴 기간의 자국 시장 수요 등에 의해 판매가 진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까지 9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에 오른 삼성은 올해도 선두 수성이 유력하다. 경쟁업체들과의 격차가 아직까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력 부분에서는 점차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정부의 지원 등에 업은 중국 업체의 도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LCD TV 시장에서 기술·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TV 사업 부문은 적자를 기록했다.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 유닛, 스마트기능 등을 발 빠르게 적용하며 LCD TV 시장을 선도해 온 삼성전자는 최근 차별화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LCD TV를 구부린 커브드 모델을 내놨고 올해는 퀀텀닷 기술을 더해 색 재현성이 높은 제품을 선보였다.

하지만 LCD TV 사업이 자리게임으로 치달으면서 차세대 제품이 삼성전자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유보적 입장이다.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최근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OLED TV 개발 중이지만 출시 계획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고수하는 RGB 방식으로는 단시일 내에 OLED TV를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RGB 방식이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소형 패널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대면적화에 여러 난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시장에서 유일하게 OLED TV를 양산 중인 LG는 WRGB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RGB 방식으로도 기술적 보완이 되면 양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산성과 투자비용 측면에서 WRGB 방식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삼성전자의 OLED TV 재출시는 빨라야 2017년 하반기쯤이나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2013년에 OLED TV를 출시했으나 후속 모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초현진기자 [illegible]

지난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5에서 전시된 삼성전자의 SUHD TV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갤럭시 S6·엣지, 최적화 실패

화면끊김·강제종료 발생
SW 불안정에 흥행 악재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시리즈가 소프트웨어 불안정 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났니.

삼성전자 갤럭시S6 시리즈가 벤드게이트 논란 이후 최근 소프트웨어 최적화 논란이 일어나면서 흥행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영국의 삼성전자 모바일 제품 전문 IT 매체 샘모바일은 "갤럭시S6가 고용량 램을 사용함에도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샘모바일에 따르면 갤럭시S6 사용중 다른 애플리케이션 창이 갑작스레 닫히는가 하면, 여러 앱을 동시에 구동할 수 없다. 2GB 이상의 램을 탑재한 스마트폰에서는 드문 일이다. 단지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사람이 겪는 공통의 문제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1일 공식 영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갤럭시 S6 시리즈의 램 가동에 문제가 있어 애플리케이션이 강제종료되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최적화 실패 문제를 인정했다. 이후 지속적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화면 끊김 현상과 와이파이 접속이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갤럭시S6 시리즈 사용자들이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제품 후기를 남기고 있는 가운데 갤럭시S6 엣지의 화면 끊김 현상이 담긴 동영상을 최근 본지에서 입수했다.

해당 영상에는 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를 접속한 상태에서 플래시 부분의 끊김 현상이 담겨있다. 영상 촬영자는 "갤럭시S6 엣지를 사용한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빽하면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갤럭시S6 엣지의 화면 끊김 동영상을 직접 지켜본 전자업계 관계자는 "와이파이 접속 문제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화면 전체가 아닌 플래시 부분에서 끊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래시와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최고의 하드웨어 성능을 갖춘 갤럭시S6 시리즈가 소프트웨어 최적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7000만대 판매를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삼성전자 갤럭시S6 엣지 화면끊김 현상

'미니빔 TV' 10분에 1대씩 팔렸다

월 판매량 50% 껑충

LG전자의 미니빔TV가 국내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캠핑족과 1인 가구를 겨냥한 LG 미니빔 TV의 국내시장 월 판매량이 50% 이상 증가했다.

미니빔 TV는 지난달 약 5000대 팔렸다고 LG전자가 5일 밝혔다. 10분에 1대 이상 팔린 셈이다. 5월 초 황금연휴와 가정의 달을 맞아 판매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니빔 TV는 LED(발광다이오드)를 광원으로 한 프로젝터로 TV 튜너를 내장해 안테나만 있으면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는 제품이다. LED 수명은 최대 3만 시간으로 하루 8시간씩 10년간 쓸 수 있다.

지난 3월 풀HD 해상도에 블루투스를 겸비한 PF1500, 휴대성과 디자인을 강조한 PW800 등 미니빔 TV 신제품 2종을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illegible]기자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 성수기편 광고 공개

조절전 강력 냉방 기능 강조

삼성전자는 폭염이 예상되는 올 여름을 대비해 조절전 강력 냉방 기능을 강조한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 성수기편 광고(사진)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 의 이번 광고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알려진 뉴질랜드에서 촬영됐다. 드넓은 대지 우거진 숲 속 빙하의 만년설로부터 불어오는 사원한 바람을 온 몸으로 만끽하는 김연아를 통해 청량감 있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이어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빙하로 알려진 '타스만 빙하' 한 가운데에서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 3개의 바람문이 뿜어내는 조절전 회오리 바람을 보여주며 강력한 냉방 기능을 직관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조현진기자

SKT, 창업지원 프로그램 40억 투자 유치

SK텔레콤의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브라보! 리스타트' 기업들이 속속 외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성장을 향한 신호탄을 쐈다.

SK텔레콤은 '브라보! 리스타트 1~3기 총 34개 업체 중 6개사가 올해에만 외부 투자기관으로부터 총 40억원 이상을 투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용 점자 스마트워치 개발 회사인 Dot가 글로벌 스타트업(신성 벤처기업) 발굴·육성 전문기관인 액트너랩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해 브랜디, 비주얼캠프, 1SL코리아, 크레모박 등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외부에서 투자받는다는 것은 사업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성장을 향한 첫 관문을 넘어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대기업 '뒷짐'에 전기차사업 제자리 걸음

정부 각종 지원에도 반응 냉랭
전문가, 대기업 투자제고 촉구

한국의 전기차 시장이 어둡다. 우리나라에 보급된 전기차 규모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채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굴뚝산업(내연기관 자동차)과 정보기술(IT)산업의 융합체인 전기차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면서 기존 완성차 업계와 대기업의 투자제고를 촉구했다.

5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세계 전기차 보급수는 약 66만5000대다. 총 승용차 판매량의 0.008%를 차지한다. 이 중 미국이 39%, 일본 16%, 중국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4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 제28회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가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차 ix35 모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수는 약 3000대 가량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5%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민간 중심의 유료충전서비스 시범, 배터리 리스 사업 등을 신설해 총 575기의 급속 충전기, 총 4만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 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산하의 전기차 이니셔티브(EVI) 신규 회원국으로서 정례회의를 주관하고 전기차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기차 붐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이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대차그룹(회장 정몽구) 등 완성차업계는 내연기관차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인 기아차의 레이EV·쏘울EV, 한국지엠의 스파크EV, 르노삼성의 SM3 Z.E 등은 모두 내연기관차를 기초한 것이다. 미국 테슬라 S, BMW i3 등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생산된 것과는 비교된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020년 친환경차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20년까지 하이브리드(HEV: 내연기관차+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FCEV) 등 다양한 라인업의 친환경차를 구축할 계획을 밝혀 전기차 생산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협회장은 "기존 기아차의 레이EV 등은 개조형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용 플랫폼을 갖춘 전기차 양산은 필요하다"며 "기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를 비롯해 LG, 삼성도 전기차를 생산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하는 수송분야 최상의 대안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사업진출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테슬라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미국 전역에 200여개의 급속충전소를 세우는 등 전기차 인프라를 스스로 구축하고 있다"며 "현대차 등은 정부 보조금에만 매달리지 말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존 제조업과 IT가 융합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훈기자 s1h@metroseoul.co.kr

[르포] 전기차 올림픽 '일산 EVS28' 가보니

"탄소배출 ZERO" 친환경 페달을 밟다

5월 황금연휴 전기자동차에 관심 있는 마니아라면 제 28회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28)로 연휴를 마무리 하기에 더 없이 화창한 날씨였다. 4일 열린 EVS28 개막 시간은 오전 10시였지만 한 시간 전부터 학생들과 일반인 나들이 가족까지 티켓 부스 앞에서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몰려 들었다.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열린 EVS28 전시장에 들어선 순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전 세계 45개국 150개 업체들이 준비한 전기차 라인업과 각종 부품들이 눈에 들어왔다. 현대자동차와 BMW 등 국내외 유수 자동차 업체 부스에 전시된 전기차들은 만화에서 나올 법한 작은 모델부터 겉보기에는 평범한 자동차이지만 알고보면 첨단 기술이 집약된 모델까지 볼거리가 다양했다.

'전기차 올림픽'으로 불리는 EVS28에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지엠, 르노, 닛산, BMW, 벤츠 등 완성차 업계는 물론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SDI, LG이노텍 등 부품업체도 대거 참여했다. 방사조직위원회는 인류를 위한 'e-모셔널'이란 EVS28 주제에 걸맞게 관람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전기차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시승하고 학문으로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했다.

전시회에서 현대차는 투싼 ix

EVS28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닛산 순수전기차 리프의 내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전세계 150개 업체 참여
충전기 꽂기 등 체험 풍성
개막전부터 인산인해 이뤄

35 수소연료전지차(FCV) 절개 모델을 전시해 관람객들이 내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기아차도 쏘울 순수전기차(EV) 절개 모델과 함께 관람객들이 충전플러그를 직접 꽂아볼 수 있는 충전기까지 마련했다. 이밖에도 현대차는 LF쏘나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도 선보였다.

한국지엠 부스에서는 쉐보레 스파크EV, 주행거리연장전기차(EREV) 볼트, 준대형 하이브리드 말리부이어시스트 등을 전시했다. 특히 한국지엠은 차세대 볼트를 내년에 국내 출시하겠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해 전기차 시장 확대 포부를 밝혔다.

윤정모(가명)씨는 "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향후 자동차 산업에서 일하고 싶어 전기차 시장 흐름과 기술들을 접하고자 방문했다"며 "지금까지 투싼ix FCV, SM3 Z.E 등 다양한 친환경차 시승을 해봤는데 이번 행사에선 BMW i8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가 제일 인상깊다"고 EVS28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전시장에서는 특히 르노 트위지, BMW i3가 다른 전기차보다 독특한 외관을 뽐내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밖에도 관람객들은 새로운 전기차 보통의 연료 주입구와는 다른 위치, 차에서 나오는 충전플러그 등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이밖에도 해외 진출을 꿈꾸는 전기차 관련 중소기업들도 다양한 신제품을 전시했다. CM파트너는 전기 모터사이클 '선바이크 일렉트릭'을 전시했고 파워프라자는 서울모터쇼에 이어 예쁘자나R을 전시했다. /정용기기자 yon@

현대차·르노삼성, 품질 신뢰도 '뚝'

엑센트·QM3 등 결함 발생
미국 등 북미서 잇단 리콜
국내시장선 '무상수리' 조치
車소비자연맹, 역차별 지적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등의 리콜이 잇따르며 품질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

현대차는 북미에서 각종 결함으로, 르노삼성차는 QM3 2만여대를 리콜 조치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에어백 결함이 발생한 2015년형 엑센트 2500여대를 리콜한다.

해당 엑센트는 조수석에 장착된 카시트에 유아가 앉아 있을 때 사고가 나면 에어백이 터져 유아가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좌석에 앉은 사람이 성인인지 아동인지 또는 좌석에 유아용 카시트가 있는지 등을 감지해 에어백 작동을 조절하는 조수석 탑승자 식별장치의 오류 때문이다.

사측은 "미국 법규상 조수석에 휴대용 카시트가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작동하면 안 된다"며 "해당 결함으로 인한 사고 사례는 없으며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발견해 감지장치의 설정 값을 수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누수 문제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2015년형 제네시스 2만6000여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네시스는 물이 차량 후미 등으로 스며들어 변속기 레버 표시가 실제와 다르게 나타나거나 기어 변속이 느려지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월에는 북미 시장에서 센서 결함으로 아반떼 26만3000여대가 리콜 대상이 된 바 있다.

르노삼성은 국내에서 브레이크 결함이 발생한 QM3 2만여대를 리콜한다. 해당 QM3는 전륜 브레이크호스와 펜더 내부 부품 간의 간섭으로 브레이크 호스가 마모되고,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돼 제동성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 대상은 2013년 9월 11일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제작된 QM3 2만549대다.

르노삼성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간섭 부위 점검 후 브레이크 호스 교환)를 실시한다.

업계는 국내 완성차업체의 잦가지 차량 결함으로 잦은 리콜과 함께,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에서의 역차별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북미 등 해외에선 즉각적인 리콜에 들어가는 반면 국내에서는 정부의 시정명령소차 이행하지 않거나 무상수리란 미명으로 둔갑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차량 결함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국토부가 이러니 국산차든 수입차든 업체에서는 당연히 먼저 리콜을 조치해 손해를 감수하겠느냐"며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먼저 조치한다. 우리사회는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자금을 들여 끌고 가거나 그냥 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승필기자 rontan@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홈퍼니’ 만든다”

<Home + Company>

SK C&C 사내 어린이집 '늘푸른 어린이집'에서 직원 자녀들이 대형 풍선을 가지고 놀고 있다. /SK C&C 제공

SK C&C에 근무하는 최혜린 과장(33)은 오전 9시가 되면 회사 건물 3층에 있는 사내 어린이집에 들러 아이를 맡긴다. 회사가 2005년부터 어린이집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어 워킹맘을 위한 편의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이후 같은 층에 있는 사내 카페에서 커피 한잔을 하며 출근 전 잠시 여유를 갖는다. 최씨는 9시 30분이 넘어서야 발걸음을 사무실로 돌린다. 최씨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로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한다.

SK C&C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사적 활동 공간까지 챙기는 등 철저히 관여하고 따뜻한 '홈퍼니(Home + Company)'를 만들어 가고 있다.

SK C&C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을 위해 2005년 IT서비스 업계 최초로 사내 어린이집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초기 정원 49명이던 어린이집 시설 확충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불편한 법규제 해소를 요청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현재는 정원 76명으로 늘어났다.

SK C&C에서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법정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데에도 육아휴직 대상자를 만 8세 이하 영·유아 부모로 확대 실행했다. 여성 인재가 일과 가정을 성공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를 두고 '육아휴직 자동전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산휴가가 끝난 뒤 별도의 신청 없이도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여성 직원의 임신·출산 친화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기혼 여성의 임신을 지원하기 위한 '난임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도록 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심신 수련 등 여성 직원을 위한 건강증진·스트레스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 직원들이 보다 건강하고 상쾌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심신수련 아침 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예비 부모를 위한 '심신체조 특화 반' 운영을 통해 산모와 태아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나른한 몸과 마음을 날려 버릴 수 있도록 여성 직원만을 위한 전용 휴게실도 있다. 여직원 전용 휴게실에는 수면실과 수유공간이 있다.

이렇듯 SK C&C는 여성 직원이 가정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제도, 자녀육아와 휴가제도 등 가족친화 경영 문화 조성의 모범적 기업으로 인정 받고 있다. 2013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가 수여한 '2013년 일·가정양립대회 실천대회 및 가족친화기업 포상식'에서 가족친화기업 우수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연회 SK C&C 인력본부장은 "일, 가정 양립제도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직장일수록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가 높아 기업 생산성도 좋아진다"며 "여성 직원들이 육아와 출산 등 가정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 친화적인 경영 제도·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육아·출산 경력관리까지 가족친화적 경영

SK C&C 여성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제도	세부 내용
유연근무제	출퇴근 시간 조정하는 선택근무, 출근 일수 조정하는 '탄력근무' 등 가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자동전환제도	출산휴가 끝난 뒤 1년간 추가 육아휴직 자동전환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제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심신수련실 운영	여성 직원을 위한 '심신 수련 아침 반', 예비 부모를 위한 '심신체조 특화반' 운영
여성 전용 휴게실	수면실 및 수유공간 마련

공동기획 여성가족부 metro

“유연근무제로 워킹맘의 아침을 여유롭게”

SK C&C의 여성 직원들 /SK C&C 제공

SK C&C가 2013년 11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도입한 '유연근무제'는 워킹맘의 아침 시간을 한결 여유롭게 해주고 있다.

5일 SK C&C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는 직원들이 개인 여건과 업무 상황에 맞춰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출근 일수를 자유롭게 선택해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고려해 '선택근무', '탄력근무', '재량근무'의 3가지 유연근무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

선택근무는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위로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 여건에 따라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 아니라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 등의 형태로 근무할 수 있다.

출근 일수 자체를 조정하는 탄력근무도 가능하다.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부서 직원들은 바쁠 때는 휴일 근무, 야근 등을 집중적으로 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는 아예 출근을 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여기에 더해 연구 개발과 시스템 설계·분석 등 프로젝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투입 시간과 별도로 업무 시간을 인정해 주는 재량근무가 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오전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할 수 있어 워킹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전이나 오후 시간을 활용해 어학이나 운동 등 자기계발에 열중하는 워킹맘도 적지 않다. /정문경기자

신세계 '비자금 의혹' 남매재벌 CJ와 닮은꼴

이명희·정용진 등 검찰 수사결과 주목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아들 정용진 부회장이 남매 재벌인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유사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모두 범삼성가다.

CJ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신세계 이명희 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회장의 아들 딸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는 형제자매간이다. 정용진 부회장과 이재현 회장은 이종사촌 사이다.

5일 사정당국자에 따르면 검찰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기초조사를 마치고 곧 본격적인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신세계 법인 당좌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현금화돼 그룹 총수 일가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파악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현금화된 회삿돈은 모두 70억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등의 계좌에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측은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경조사비 같은 부분의 지출을 위해 70억원 규모의 현금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공교롭게도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현 CJ회장의 혐의 내용 가운데 회삿돈 횡령 부분과 사실관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정용진 부회장 등에게 입금된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 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70억원 전체가 횡령액으로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득금액이 5억원만 넘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재현 회장의 경우 1심 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된 횡령 액수는 약 603억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지난해 2월 CJ 이재현 회장이 회삿돈 약 600억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을 불법 영득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당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의 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법인 이름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지출된 점 ▲직원들 역시 '회장님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인식한 점 ▲개인재산과 함께 관리·결산 될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현금성 경비는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하는데 긴급한 법인용 자금 충당을 위해 조성된 것이 아닌 점 ▲자금 조성 사실을 은폐한 점 등을 유죄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했다. 곧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분의 유무죄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공판에서 "현금성 경비라는 성격 때문에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신세계측의 해명과 비슷한 반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여타 재벌 총수 등의 비자금 사건에서도 빼돌린 돈이 '개인재산과 함께 관리·결산 됐는 지 여부'를 주요한 포인트로 본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데,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입금해 혼입하는 것 자체가 횡령의 고의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재현 회장 사례에서도 역시 이 부분이 유죄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다.

FIU 지적대로라면 신세계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도 이 점에서는 CJ 케이스와 다를 바가 거의 없다. 신세계 총수 일가의 개인 계좌로 회삿돈이 입금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은 일단 충족되는 셈이다.

입금 이후 지출 내용은 법적으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설사 그 돈을 직원 경조사비나 회식비 등 공적 성격이 있는 용도로 주로 썼다고 해도 이미 횡령죄는 성립됐고 다만 양형에서만 참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만일 알려진 것이 모두 사실이고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한다면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한 신세계 총수 일가는 유죄판결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유통공룡 신세계, 동네식당까지 잠식

성장 정체된 유통업에서 식품업에 눈돌리며 외식사업 확대… 자영업자 생존권 위협

"내년이면 빵집과 외식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만료돼 걱정입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재지정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말로만 골목상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지만 대형마트는 물론 유통재벌들이 앞다퉈 출점하는 이웃샵 대기업들의 출점으로 인근 상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대형 유통업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기업들로 인해 골목상권이 고사직전이라고 하소연하는 소상인들의 외침은 해를 넘겨도 되풀이되고 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을 막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등이 마련됐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엔 식품사업을 본업으로 하는 CJ외에도 신세계, 롯데까지 성장이 정체된 유통업에서 외식업으로 눈을 돌리며 골목시장 잠식을 확대,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빵집, 커피전문점 등에 이어 최근엔 한식뷔페시장까지 손을 대며 점포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신세계의 한식뷔페 브랜드 '올반'은 론칭 6개월만에 7개점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10월 여의도 와이앤드스타워 지하 1층에 1호점을 연 '올반'은 현재 5개점이 운영중으로 8월 영등포점에 이어 14일 서수원점도 연다.

이랜드의 한식뷔페 브랜드 '자연별곡'은 지난해 4월 경기도 분당 미금 1호점을 시작으로 1년만에 33개점까지 늘렸다. 현재 32개점을 열었으며 4월 평택뉴코아점 오픈도 예정돼 있다.

CJ푸드빌의 '계절밥상'은 4월 여의도 IFC점을 시작으로 9일 신림역점, 23일 동대문롯데피트인점 등 이달에만 4개점이 새로 문을 연다. 지난 2일 문을 연 인천 연수 스퀘어점 등 현재 7개점이 운영 중이다. 이달 10개점까지 하게 된다. CJ푸드빌은 2013년 7월 경기도 판교에 '계절밥상' 1호점을 열며 대기업 중 처음으로 한식뷔페를 선보였다.

롯데도 조만간 '별미가'를 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식 뷔페는 1만원 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큰 인기를 끌며 고객들을 흡수하고 있다. 후식까지 해결할 수 있어 주변 식당은 물론 커피전문점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

대기업들은 한식뷔페가 한식의 글로벌화에 앞장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근 골목상권의 몰락은 가져올 뿐 한식의 글로벌화를 위해 하는 일은 특별히 볼 수 없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망을 갖고 있는 신세계와 롯데의 경우 특별한 규제없이 자체 유통망을 활용한 대규모 외식업 확장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외식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뒤 대기업의 확장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잠식 포트폴리오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계열사 신세계푸드를 통해 올반외에도 단열블루카, 자니로켓, 보노보노, 푸드홀, 에그톡스, 데이앤데이, 달로와요, 베이커뉴브, 트레이더스, 밀크앤허니, 메이아트, 데이나쥬리 등 10여개의 외식·베이커리 브랜드를 운영중이다.

롯데그룹도 계열사 롯데리아를 통해 롯데리아, 엔제리너스커피, TGI프라이데이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나뚜루 등의 외식 브랜드를 갖고 있다.

이랜드그룹은 '자연별곡' 외에도 애슐리, 피자몰, 리미니, 렉드프램스, 더카페, 카페루고, 로쏘앤빌리보브, 후원, 반국, 이이사온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CJ그룹은 CJ푸드빌을 통해 뚜레쥬르, 빕스, 제일제면소, 비비고, 자이나벡토리, 더 플레이스, 계스버서, 시푸드 오션, 피셔스마켓, 콜드스톤 등 19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신규 매장을 낼 경우 역세권 100m 이내(역 출구로부터 100m 이내)에 출점이 가능하고 연면적 2만㎡ 이상인 대형 건물에 입점해야 한다고 규율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본사나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시설에서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출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세계, 롯데 등 유통 대기업들에 사실상 대형 외식업의 길을 열어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유통 대기업들은 외식업뿐만 아니라 의무 휴업, 출점 제한 등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매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아웃렛, 편의점을 내세워 골목상권 공략에도 다시 적극 나서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대기업들은 고용 창출을 운운하며 장밋빛 효과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며 "자산들보다 자본력이나 유통망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추가 권고 등 규제를 강화할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라기자 [illegible]

롯데마트 '아웃렛'으로 업태 변경 출점 꼼수

출점·영업시간 제한없이 골목상권진출 가속화
소상공인시장·지하상가 등 지역경제 붕괴 우려

대형마트 롯데마트(대표 김종인)가 정부의 출점제한 조치로 신규 점포 개설에 발목이 잡히자 아웃렛으로 업태를 변경하며 골목상권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롯데쇼핑(회장 신동빈)은 아웃렛을 통한 롯데마트 출점에 대해 쇼핑과 레저를 결합한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역상인들은 롯데마트 등은 정부의 골목상권보호정책에 따라 출점이나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지만 아웃렛은 적용 대상에 빠져있어 꼼수 출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지난달 22일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에서 롯데마트 항동점 아웃렛 변경 규탄 대회를 열었다. 롯데쇼핑은 중구 항동 롯데마트가 있던 자리에 오는 5~6월 지상 6층 규모의 대형 아웃렛을 열 계획이다. 롯데마트로는 경쟁력이 없자 아웃렛으로 업태를 변경하고 사업 확장에 나선 것이다.

인천시 상인들은 롯데마트 항동점이 팩토리 아웃렛 형태로 변경될 경우 중저가 의류를 주로 판매하는 지하상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 지정 전통상점가인 동인천지하아케이드, 인현지하상가, 새동인천지하상가 3곳이 항동점과 3km 거리에 불과한데도 롯데마트 측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지하상가 업주들은 "3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롯데마트 항동점 인근에 동인천역세권 지하도 상가의 80%가 패션 의류 잡화를 팔고 있지만 롯데마트는 아웃렛으로 업종을 바꾸면서 상권영향평가서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대형 유통재벌들 때문에 그나마 이어온 생계수단을 잃게 됐다"고 성토했다.

롯데아웃렛 고양터미널점 전경. /롯데마트 제공

서울 마포구 지역의 소상공인단체와 상인들도 롯데가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대형 복합쇼핑몰을 건설하는 계획에 강력하 반대하고 있다.

롯데는 상암동 DMC 내에 약 10만3000평 면적의 복합쇼핑몰을 짓고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 영화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마포구 지역 상인들은 DMC 롯데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반경 5~10km 내에는 대형마트 14개를 비롯해 백화점 6개, 쇼핑센터 11개, SSM 81개 등이 있어 롯데 복합쇼핑몰로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골목상권은 물론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상암동DMC 롯데복합쇼핑몰 강행반대 마포구 비상대책위'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인근 지역 중소상인들은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경남 진주와 경북 포항 등에서도 롯데마트 등을 포함하는 롯데 아웃렛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들과 충돌하고 있다.

전국의 지역 상인들이 롯데마트의 아웃렛 입점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 상권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등포 신세계의 타임스퀘어, 경기도 파주의 신세계 첼시, 롯데 프리미엄급 아웃렛의 반경 5~10km 내의 상점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들어선 3년 후 인근 지역 점포당 매출이 출점 전보다 월평균 약 1300만원, 연평균 약 1억6000만원이 줄었다. 이는 점포당 매출이 대형쇼핑몰 입점 전보다 46.5% 감소한 수치다.

특히 대형마트를 낀 아웃렛 입점의 파장은 슈퍼마켓이나 식료품 점포에 그치지 않고 패션업종의 파장이 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에 실시한 '대기업 아웃렛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션업종 관련 중소기업 84.2%가 대기업 아웃렛 입점 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롯데마트가 말로는 상생을 외치면서 대형마트에서 아웃렛으로 명칭만 바꿔 전국적으로 점포를 늘려가고 있다"며 "대형마트의 경우 그나마 골목상권보호정책으로 상권에 보호되는 측면이 있으나 아웃렛이나 복합쇼핑몰은 여기에도 빠져 있어 지역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은석기자 21cenfun@metroseoul.co.kr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 CJ푸드빌 직원이 비비고 가공식품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CJ푸드빌 제공

CJ '비비고' 한식 우수성 세계에 알린다

2015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레스토랑 6개월간 운영

CJ푸드빌(대표 정문목)은 한식 브랜드 비비고(bibigo)가 '2015 밀라노엑스포' 개최 기간에 한국 국가관(이하 한국관)의 레스토랑 운영을 맡는다고 5일 밝혔다.

2015 밀라노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전의 하나인 세계박람회로 지난 1일 개막해 6개월(184일)간 열린다.

비비고는 오래 전부터 꽃이은 한국 식문화의 세계화 노력을 역량으로 삼아 2015 밀라노엑스포 개최 기간 동안 한국관 내(1층) 한식레스토랑을 운영해 전세계인이 한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비비고는 2015 밀라노엑스포에서 조화, 치유, 장수 3가지 테마 아래 총 6가지 특별 메뉴를 선보였다. 이번 테마 메뉴는 한상차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 접시(One-plate) 구성으로 "미래 음식의 대안으로서의 한식"이라는 메시지를 선보이는 데에 주력했다.

세 가지 테마 중 '조화' 메뉴는 오방색을 사용한 전통비빔밥과 채소비빔밥을 중심으로 맛과 영양의 균형을 담았다. '치유' 메뉴는 숙성간장과 쌈장 등 우리의 대표 발효음식을 갈비찜과 떡갈구이에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장수' 메뉴는 백김치 비빔면, 잡채 등으로 옛부터 장수를 기원하며 먹은 면 요리에 김치를 곁들여 우리 저장 음식의 우수성까지 선보였다.

간편함에 맛까지… 식품업계 '캠핑' 훌릭

캠핑문화 확산으로 '햇반 컵반', '비비게따' 등 간편식 주목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식품업계의 캠핑푸드 출시 경쟁이 뜨겁다. 기존의 일반적인 간편식을 넘어 조리 방법은 물론 맛과 영양까지 업그레이드됐다.

5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캠핑 관련 상품 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캠핑 취사용품이 전년 동기 대비 68% 늘었다. 샐러드, 채소나 냉장 간편식 등의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별한 조리 없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간편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분석했다.

CJ제일제당은 햇반을 넣은 컵밥 제품인 '햇반 컵반'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순두부찌개국밥, 미역국밥, 사골곰탕, 황태국밥 등 4가지이고 전자레인지로 4분, 끓는물로 1분 30초면 조리될 수 있다. 햇반과 국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액상 소스를 넣어 고체형 건더기 블록을 넣은 기존 국밥류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회사 측은 1인 가구와 캠핑 등 아웃도어 인구의 증가세에 따라 햇반 컵반으로 올해 1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하림은 야외에서도 손쉽게 닭고기 구이 별미를 즐길 수 있는 순살 닭고기 '자연실록 정육 소금구이'를 출시했다. 국내산 프리미엄 닭고기 정육을 먹기 좋은 크기로 포장하고 신안군 특산 천일염을 원료로 한 '토판 허브맛 소금'을 동봉했다. 번거로운 손질 과정이나 별도의 양념이 없어도 동봉된 토판 허브맛 소금만 뿌려 구우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오뚜기는 캠핑에서 쉽고 간편하게 이탈리아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비비게따' 파스타 소스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면 1인분을 삶아 그릇에 담고 소스 한 봉지를 부어 비비기만 하면 먹을 수 있어 간편하다. 프라이팬이 필요 없는 간편함과 조리 시간 단축으로 기존 스파게티 소스와 달리 편의성이 뛰어나다.

매일유업의 치즈 전문 브랜드 상하치즈는 맛과 영양, 먹는 재미까지 더한 찢어먹는 스트링 치즈 '윙스'를 선보였다. 신선한 국산 원유 100%를 사용, 제품 1개당 개별 포장돼 있어 휴대와 보관이 편리해 캠핑에 안성맞춤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bora9818@

돌출입 '킬본'으로 마음껏 웃는다

수술 없는 치아교정 치료법 만성질환 앓는 중장년에 인기

평소 돌출입으로 고생하는 중년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다. 바로 수술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치아 교정만으로 돌출입을 치료하는 '킬본'이란 치아교정법 때문이다.

박미숙 씨(55·주부)는 평생 콤플렉스였던 돌출입을 수술 없이 치아교정만으로 치료효과를 경험했다. 그 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방문했던 병원들마다 돌출입은 수술만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치료를 포기하고 있었다. 박씨는 젊은 시절부터 앓아온 당뇨로 전신마취가 들어가는 수술은 부담스러웠다. '킬본'으로 돌출입이 들어가고 나니 조금 더 젊어진 느낌도 들고 자꾸만 거울을 보게 되는 등 삶이 즐거워졌다.

박씨처럼 젊어서부터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40대 이후의 중장년층은 젊은층에 비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보유율이 높다. 이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는 것을 망설이기 쉽다. 혹시 중세가 심해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만성질환자들은 전신마취나 수술 중 출혈, 부작용 등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돌출입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돌출입은 잇몸이 과하게 보이는 거미스마일이나 무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입을 자연스럽게 다물기 어려워 치아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겹쳐지는 등 치아배열이 흐트러지면서 자주 입이 역뢰되거나 심한 경우 치아가 빠지기도 한다.

또 입이 자연스럽게 다물어지지 않으면 입으로 호흡하게 되고 이때 미세먼지 등이 폐로 직접적으로 들어간다. 이미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중년층은 면역력이 약해져 제2의 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돌출입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치료 중 하나다. 하지만 돌출입은 양악이나 돌출입수술 등 수술적 치료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수술에 부담을 갖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이 쉽게 치료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센트럴치과 권순용 원장은 "만성질환자들은 평소 운동이나 식습관 등 건강관리에 적극적인 반면 수술이 따르는 치료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때가 많다. 특히 돌출입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강질환이나 기타 다른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기존에는 돌출입은 수술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수술 없이 치아교정만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말·센트럴치과 권순용 대표원장

/최치선기자 chisunt@metroseoul.co.kr

더페이스샵, 여름필수품 반값 할인

클렌징 수분크림 등 14일까지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가정의 달을 맞이 열흘 간 클렌징과 수분크림, 선크림 등 시즌 필수 제품을 할인한다고 5일 밝혔다.

가정의 달 감사 세일은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모든 구매고객에게 품목별로 20~5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황사와 미세먼지 등이 걱정되는 봄철 필수제품인 클렌징 전품목에 50%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신제품 '아이스 에어퍼프 선' 을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 전품목과 향수 전품목, '브라이트닝 바란 수분크림'과 '치아씨드 피지잡는 수분크림' 등 수분크림 전품목도 30% 할인한다. 또 본품과 증정 미니어처 등으로 구성된 '치아씨드 2종 기획 세트', '24시간 롱스테이 CC크림 세트', '피톤씨드 스페셜 바디 세트', '네일케어 스페셜 세트' 등을 한정수량 30%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 '더테라피'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더테라피 수분항노화 3종 스페셜 샘플 키트'를 증정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

환기·창틀관리 생활화… '소아 천식' 꼼짝마!

이대목동병원 생활수칙 발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자 세계 천식의 날이다.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에 드는 선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이때에 선물만큼이나 잘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자녀의 건강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야외 활동이 잦고 미세먼지나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봄철에는 기관지 건강이 취약해지기 쉬우므로,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대목동병원은 ▲2주~1개월 간격 침구 세탁 ▲하루 3회 30분 환기 ▲소금·신문지로 창틀 먼지 관리 ▲가정 내 금연 ▲외출시 마스크 착용 준수 ▲귀가 후 손씻기 생활화 등 소아 천식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6가지 가정 내 생활 수칙을 제안했다.

소아 천식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6가지 가정 내 생활 수칙

이대목동병원 알레르기내과 김민재 교수는 "소아 천식은 평생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므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악화 인자를 피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부모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

롯데칠성, 과즙 100% '그린주스' 4종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무가당 주스 '델몬트 자연맛을 그린주스'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델몬트 자연맛을 그린주스는 최근 건강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건강한 주스 콘셉트로 천연 과즙 100%로 맛을 내 과일 본연의 풍부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오렌지·포도·제주감귤·사과 총 4가지 맛(사진)으로 구성됐다. (750㎖/페트)

특히 부균살균에서 페트병에 저온으로 급속 냉각한 과즙을 담는 어셉틱 공법으로 과일의 신선한 맛과 향을 그대로 담아냈다. /김보라기자

강강술래, 가족 공연나들이 쏜다

'플란드, 천년의 예술'展 1인 2매씩 티켓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가 쓸쓸이가 많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플란드, 천년의 예술' 전시회 티켓(1인2매)을 증정한다.

또 어버이날 전 매장에서는 65세 이상 방문 고객에게 선물용으로 타월을 선물로 준다(소진시까지). 주말(9~10일)에는 서초와 여의도점은 한우모둠구이 한양념갈비, 한우관양불고기, 역삼점은 양양념갈비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증정한다.

온라인쇼핑몰(www.sullamall.com)과 전화주문(080-725-9292)을 통해선 15일까지 부모님 선물로 제격인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박스(350㎖·10팩)는 2만5200원, 중용량박스(500㎖·10팩)는 2만8600원, 대용량박스(800㎖·10팩)는 4만3200원에 각각 할인판매한다.

예관이 영양간식으로 구성된 영양만점세트(칠칠한우 떡갈비 360g+흑임자한돈너비아니 360g+통등심돈가스 720g+모짜렐라 돈가스 720g)는 40% 할인된 4만3800원에, 가정식세트(한우불고기 500g+한돈양념 500g+돼지양념 750g+숯레양념 520g)는 36%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한다.

/김보라기자 bora6@

지하철 3호선 '달리는 도서관' 운영

달리는 음악열차', 가수 이문세 게릴라 방송'에 이어 지하철에 '달리는 도서관'이 열린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는 케이스퀘어 아트매니지먼트(대표 허정화)와 함께 '펀펀(FunFun)지하철' 제3탄으로 독서열차를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간 운행한다고 밝혔다. 독서열차는 '지하철에서 즐기는 독서여행'을 주제로 3호선 전동차 마지막 두 칸 내부를 마치 도서관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랩핑하여 꾸며진다. 노약자석 상단 선반은 책장으로 변신하여 '1Q84', '미시펄로 두 번째 이야기' 등 베스트셀러 도서 50여 권이 비치될 예정이다.

갤럭시S6 vs G4, 서로 다른 홍보로 '승부'

틈새 홍보전 열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와 G4는 서로 다른 스펙과 외관만큼 홍보에 있어서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갤럭시S6의 홍보 중심에는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엔터테인먼트 기업 마블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5일 삼성전자는 마블사의 영화 '어벤져스2'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등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영화 시사회장에도 갤럭시S6엣지와 갤럭시 콘텐트, 제품이 전시됐다.

'어벤져스2'의 출연배우 역시 갤럭시S6·S6엣지 홍보에 동참했다. 캡틴 아메리카 역의 배우 크리스 에반스는 지난달 시사회장에서 갤럭시S6엣지로 팬들과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삼성전자 IM부문 수뇌부도 영화를 통한 홍보에 동참했다. 지난 4일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 이상철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 이영희 무선사업부 마케팅팀장(부사장) 등 임원 10여명은 출입기자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어벤져스2'를 관람했다. 삼성전자는 점진적으로 S6엣지의 공급을 늘려 올해 4분기까지 S6와 S6엣지의 판매비율을 5대5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신 사장은 영화 관람을 마친 후 코엑스 갤럭시존을 방문해 어벤져스2의 캐릭터 테마로 꾸민 S6 스마트폰을 직접 조작하고 가상현실(VR) 기기인 '기어 VR'을 착용해 보기도 했다.

LG전자 역시 G4제품의 체험 위주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LG그룹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1분기 실적발표회가 끝나고 G4 제품 설명회 후 임직원 체험존이 LG트윈타워 1층에 마련됐다. 오중석 사진작가가 G4 카메라를 이용해 공개됐던 작품도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련된 G4 체험존에도 직장인들은 출퇴근길과 점심시간에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체험존에서 G4를 구경했다.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높은 곳의 체험존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LG전자는 체험 중심의 홍보 전략을 늘릴 방침이다.

/정은미기자 sun718@metroseoul.co.kr

SKT 웨어러블 기기 시장 겨냥, '스마트밴드' 출시

SK텔레콤은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자의 컨디션에 따른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패션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밴드'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밴드는 7.6mm의 얇은 두께에 20.5g의 가벼운 무게로 24시간 착용 가능하며 곡선형 본체와 이에 연결된 링 구조로 여성의 가는 손목에도 꼭 맞게 착용할 수 있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주요 기능은 활동량, 수면정보, 생리주기 등을 종합해 수치로 제시하는 '라이프 스코어' 관리, 연인 간 하트전송 등이다.

스마트밴드는 사용자의 컨디션에 따라 '라이프 스코어' 목표를 유기적으로 조정해 준다. 예를 들어 며칠간 운동량이 과도하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 혹은 여성이 생리중인 기간에는 운동량을 조정할 것을 권하는 방식이다.

연인간 하트 전송은 밴드의 사용자들끼리 애인등록 신청 후 서로에게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하트를 많이 보낼수록 아이콘의 표정과 색깔이 밝아지고 메시지도 달라지는 등 연인 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스마트밴드의 소비자가는 6만9900원으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이후 오프라인 채널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전용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달에는 iOS에서도 설치 가능하다.

/정은미기자 hm@

'초경량·초슬림', 노트북의 진화

1kg이하로 가볍게 가볍게

노트북이 가볍고 얇아지는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대학생, 직장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휴대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볍고 얇은 노트북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트북9', LG전자 '그램', 에이수스 '젠북' 등은 가볍고 얇은 노트북을 찾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삼성전자 '노트북9'

올해 초 출시된 삼성전자의 '노트북9 시리즈'는 지난 3월 1만대 이상 판매됐다.

노트북9 시리즈 모델 가운데 '노트북9 2015 에디션'과 '노트북9 라이트'의 인기가 높다. 에디션 모델은 두께 11.8㎜, 무게 0.95㎏으로 얇고 가볍다.

배터리 효율이 향상돼 충전 한 번으로 12시간30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갤럭시S6의 울트라 파워 세이빙 모드가 노트북에 적용돼 배터리 잔량이 10%인 상황에서도 사용 시간을 최대 1시간 가량 연장시킬 수 있다.

라이트 모델은 라인 그린, 블러쉬 핑크 등 개성 있는 색상으로 출시됐다.

노트북9 시리즈 제품은 미국 안전규격 기관 UL로부터 인체 공학 키보드 인증을 받은 곡선형 키캡을 적용했다. 손가락에 최적화된 곡선형 키캡은 타이핑할 때 미끄러짐을 방지해 오타를 줄인다.

◆LG전자 '그램'

LG전자는 '그램' 시리즈를 통해 초경량 노트북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지난 2월 LG전자는 그램13, 그램14에 이은 세번째 그램 시리즈 '그램15(모델명 15Z950)'을 출시했다.

LG 그램15

전작 그램14는 출시 한 달만에 판매량 1만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그램15는 15.6인치(39.6㎝)의 대화면임에도 무게는 1.39㎏이다.

한국기록원은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15.6인치 노트북 중 그램15가 가장 가볍다고 인증했다.

그램15는 인텔 4세대 CPU보다 그래픽과 멀티태스킹 성능이 20% 이상 향상된 인텔 5세대 CPU를 탑재했다.

고밀도 배터리를 사용해 최대 사용시간은 10.5시간이다.

외형 커버에는 마그네슘 소재가 적용됐고 스노우 화이트, 샴페인 골드, 메탈 블랙 등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정은미기자

LGU+, TV용 영상 어댑터 '티비링크' 선봬

LG유플러스는 TV나 모니터 등에 연결해 셋탑박스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대형 화면에서 볼 수 있는 TV용 영상 어댑터인 '유플러스 티비링크'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티비링크는 TV나 모니터, 프로젝터의 HDMI 포트에 연결해 영화 무제한 월정액 서비스인 '유플릭스 무비'의 콘텐츠를 대화면에서 바로 감상할 수 있다. 1만9000편의 영화·미드를 휴대폰과 TV에서 번갈아 볼 수 있다.

TV에서 유플릭스 콘텐츠를 감상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빨리감기, 볼륨 조절 등 리모콘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전화를 받거나 메신저를 사용하는 등 다른 작업도 동시에 할 수 있다.

티비링크에 직접 어플리케이션(어플·앱)을 설치할 수도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다양한 앱을 TV에 연결된 티비링크에 직접 다운 받아 설치해 이용할 수도 있다. 앱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파일도 저장·사용할 수 있다.

판매가는 6만9600원이며 이를 24개월간 분납하면 매월 2900원을 내면 된다. 전국 주요 131개 매장과 온라인 유플릭스 앱에서 구매 가능하다.

/정은미기자

화웨이·샤오미, 프리미엄폰으로 과포화 중국시장 정면돌파

포화상태에 이른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위기를 타파할 전망이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가 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 85.8%을 차지하며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다. 최근에는 공급 과잉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중국 휴대폰 생산대수도 줄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중국 MIIT 자료에 따르면 3월 중국 휴대폰 출하대수가 전년대비 5.2% 감소했고 1분기 누적 중국 휴대폰 생산대수 역시 전년대비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 우려가 현실화 되면서 중고가 프리미엄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중국 업체 화웨이가 지난해 5월 출시한 프리미엄 모델 화웨이P7은 6개월만에 400만대 출하량을 달성했다. 같은해 9월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Mate7은 3개월만에 200만대 이상이 출하됐다.

지난 1월 화웨이의 휴대전화 사업을 담당하는 화웨이 컨슈머 비즈니스 그룹은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7500만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시 화웨이는 지난해 중고가 스마트폰 출하 비중이 18%로 증가한 점을 주목할만한 성과로 꼽았다. 화웨이는 지난달 전략 스마트폰 P시리즈 화웨이P8과 화웨이P8 맥스를 공개했다.

중국의 휴대폰 업체 샤오미, 메이주 역시 3000 위안 이상의 고가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다.

/정은미기자

"애교 연기요? 대놓고는 못하겠어요"

진세연(21)은 안방극장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왔다. 20대 초반의 나이지만 2011년 '내 딸 꽃님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닥터 이방인'까지 드라마 주연작만 벌써 9편이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만으로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도 받고 있다. 데뷔 5년차 배우치고는 눈에 띄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진세연이 늘 탄탄대로를 달려온 것은 아니었다. 배우라면 한번쯤 부딪히게 되는 연기의 한계를 진세연도 느꼈다. 그 한계를 가장 뼈저리게 실감한 것은 바로 '닥터 이방인'을 마친 뒤였다.

"보통은 극이 진행될수록 감정이 깊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닥터 이방인'은 시작부터 비극적인 감정을 가진 채 출발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극의 정점으로 갈수록 감정이 더더욱 깊이 쌓이게 됐죠. 그 깊은 감정을 보여주고 싶은데 정작 저 자신이 그걸 못 따라가더라고요. 답답했죠. 바스트 샷을 찍을 때는 무섭기도 했고요. 자신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일까. 진세연은 '닥터 이방인' 이후 차기작으로 유쾌한 코미디 영화인 '위험한 상견례2'(감독 김진영)를 선택했다. 코미디인데다 여러 배우들이 어우러지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첫 주연 영화라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그동안 드라마에서 보여준 어두운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밝게도 하고 섹시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배우로서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진세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닥터 이방인' 후 한계 느껴
영화 촬영하며 자신감 회복
더 밝은 모습 보여 주고파

'경찰가족'이라는 가제처럼 영화는 경찰 가족과 도둑 가족의 딸과 아들이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다. 첫 눈에 반해 7년째 사랑을 이어오고 있는 영희(진세연)와 철수(홍종현) 커플의 로맨스와 이들의 결혼을 방해하려는 경찰 가족과 도둑 가족의 합동 작전이 극의 중심에 있다.

인물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 영화지만 진세연이 신경 쓴 것은 영희와 철수의 관계였다. 7년 동안 사귄 커플인 만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커플의 다정함이 영화에 묻어나기를 바랐다. 영화 초반 고시원 옥상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는 철수와 영희의 모습이 그러했다. 모태 솔로인 진세연에게는 오래 사귄 연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 장면이 우리 영화의 첫 촬영이었어요. 종현 오빠가 지금 '세연 씨'라고 부를 때였죠(웃음). 그런데 오히려 만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그 장면을 촬영하니 그 다음부터는 종현 오빠와의 연기가 많이 편해졌어요. 애교요? 그건 정말 힘들었어요(웃음). 제가 생활 애교가 있기는 한데요. 영희처럼 대놓고 하는 애교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희가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참 다행인 기분이에요."

철수 앞에서는 마냥 귀여운 영희지만 일할 때는 온몸을 내던지는 의욕적인 경찰이기도 하다. 마약사범 검거를 위해 접대부를 가장해 룸살롱을 급습하는 장면, 그리고 연쇄 살인사건의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비밀 클럽에 잠입하는 장면에서는 그동안 진세연이 보여주지 않았던 섹시한 변신이 눈에 띈다.

특히 클럽 신에서 입고 나오는 비키니는 언론시사회 이후 순간 화제가 됐다. 물론 극의 흐름만 놓고 보면 꼭 등장해야 했을지 의문이 드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세연은 "영화가 편집돼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 장면 전에 철수와 영희가 냉전 상태를 겪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비키니 신은 그런 둘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일 때문에 비키니까지 입으며 일해야 하는 영희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배우는 연기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 진세연은 첫 상업영화 주연작인 '위험한 상견례2'를 통해 보다 여유를 갖고 즐기는 연기의 재미를 조금이나마 느꼈다. 촬영현장의 유쾌함 속에서 잃었던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었다. 진세연이 연기력 논란에 시달렸던 것은 어쩌면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한 캐릭터를 주로 연기했기 때문은 아닐까. '위험한 상견례2'에서 자신의 나이대에 딱 맞는 밝고 귀여운 역할을 만난 진세연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지금 진세연이 바라는 것도 보다 밝은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다.

"배우로서의 목표를 이야기할 때마다 좀 부끄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꿈은 크게 가져야겠죠? (웃음) '믿고 싶은 배우'라는 수식어가 제 이름 앞에 붙을 때 저 스스로 배우로서 성공했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진세연? 누구야?'라는 느낌이 있잖아요(웃음). 언젠가는 '진세연? 좋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 이완주

진세연

star bag

옥상달빛 앨범 내레이션

배우 **정은채**가 그룹 옥상달빛 싱글 앨범 '무해한 시대' 두 번째 트랙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내레이터로 참여했다. 그는 담담하고 애잔한 감성으로 노랫말을 재해석했다. 앞서 자신의 첫 번째 EP앨범 '정은채'를 통해 신비로운 목소리를 들려준 바 있다. 정은채가 내레이션한 옥상달빛 싱글앨범 '무해한 시대'는 오는 7일 정오 발매된다.

첫 솔로 '마이' 모디모 티저 공개

그룹 비스트 **장현승**이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첫 솔로 앨범 '마이'에 수록될 신곡 '나와' 오디오 티저와 재킷 이미지를 공개했다. 장현승의 허밍과 매혹적인 저음이 조화를 이룬다. 트랩 비트를 이용한 소프트 힙합 장르의 곡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노래한 가사가 특징이다. '마이'는 8일 오전 0시 발표된다.

아이돌에서 DJ로 변신

그룹 제국의 아이들 **문준영**이 오는 15~17일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월드 DJ 페스티벌의 16일 무대에 오른다. 문준영은 DJ 제이에프터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이날 프로듀서 겸 DJ인 스나이퍼와 공동 프로듀싱한 신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월에도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에서 파티를 열어 디제잉 실력을 보여준 바 있다.

두 번째 도전 OST '머리핀' 발표

방송인 **지석진**이 한국-홍콩 합작 드라마 '7일간의 로맨스' OST '머리핀'을 불렀다. KBS1 드라마 '고양이는 있다'에 이어 두 번째다. '머리핀'은 이별 후 아픔을 잊기 위해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낸 남자가 어느 날 침대 밑에서 이별한 연인의 머리핀을 발견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한다. 지석진과 피아니스트 박은주의 조화가 완성도를 높였다.

숨 죽였던 한국영화 반격 스타트

로맨틱 코미디·스릴러·하드보일드 등 다양한 장르 개봉 앞둬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피해 숨 죽였던 한국영화가 5월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한다. 로맨틱 코미디부터 스릴러, 하드보일드 멜로, 실화 바탕 드라마 등이 개봉을 앞두며 한국영화 자존심 살리기에 나선다.

그 포문을 여는 작품은 7일 개봉하는 '연애의 맛'(감독 김아론)이다. 산부인과 의사와 비뇨기과 의사의 좌충우돌 코믹 로맨스를 그린 영화다.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일밤-진짜 사나이'의 '여군 특집2'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배우 강예원이 비뇨기과 의사 길신설 역을 맡았으며 오지호가 상대역인 산부인과 전문의 왕성기로 분했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19금 로맨틱 코미디로 극장가에 신선함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첫 주연 영화 '숨바꼭질'로 560만 관객을 동원한 배우 손현주의 스크린 복귀작인 '악의 연대기'는 14일 개봉한다. 특진을 앞둔 최고의 순간 사람을 죽인 최반장(손현주)이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담당자가 돼 사건을 은폐하기 시작하면서 더 큰 범죄에 휘말리게 된다는 스릴러다. 손현주는 "이 정도로 재미있는 시나리오라면 스크린에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했다"며 작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마동석, 박서준 등도 출연한다.

전도연, 김남길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무뢰한'은 27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진심을 숨긴 형사와 거짓이라도 믿고 싶은 살인자의 여자 사이의 피할 수 없는 감정을 그린 하드보일드 멜로 장르의 영화다. '킬러들의 수다'의 오승욱 감독이 15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기도 하다. 13일 개막하는 제68회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도 초청됐다.

6월에도 한국영화의 개봉 러시는 계속된다. ▲임수정 유연석 주연의 '은밀한 유혹' ▲신수원 감독 이현우 주연의 '연평해전' ▲류승범 고준희 주연의 '나의 절친 악당들' ▲김윤석 유해진 주연의 '극비수사' 등이 6월 중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연평해전'과 '극비수사'는 실화 바탕의 영화다. '연평해전'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발생한 연평해전의 실화를 그렸다. '극비수사'는 1978년 부산 지역에서 사주로 유괴된 아이를 찾은 형사와 도사의 이야기를 다뤘다. '은밀한 유혹'과 '나의 절친 악당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두 스타의 스크린 복귀작이다. 임수정은 '은밀한 유혹'으로 3년 만에, 류승범은 '나의 절친 악당들'로 2년 만에 관객과 만난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살아있는 전설과 함께한 감동

공연 내내 내리던 빗방울 열기 식히지 못해

concert review

■ 폴 매카트니 내한무대

"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주드, 나 나나 나나나나…"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을까. 4만5000명 관객들은 비가 내리는 빗속에서 비틀즈(The Beatles)의 '헤이 주드(Hey Jude)' 후렴구를 따라 불렀다.

'살아있는 전설' 폴 매카트니는(73·Paul McCartney)는 2일 오후 서울 잠실 종합운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첫 내한공연을 열고 한국 팬들과 드디어 만났다. 비틀즈가 1962년 첫 싱글 '러브 미 두(Love Me Do)'를 낸 지 무려 53년 만의 내한이다. 특히 매카트니는 지난해 5월 건강악화로 내한 공연을 갑자기 취소해 팬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었다. 내한공연 취소 이후 약 1년 만인 이날 오후 8시 20분, 매카트니는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성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첫 곡은 비틀즈 4집 수록곡 '에잇 데이즈 어 위크(Eight days a week)'였다. 오프닝 무대를 마친 매카트니는 "안녕하세요. 한국 와서 좋아요. 드디어"라며 어눌한 한국말로 첫 인사를 건넸다.

바로 이어진 무대는 '캔트 바이 미 러브(Can't buy me love)'였다. 신나는 무대에 객석은 들썩이기 시작했다. 매카트니는 "오늘 신나게 놀아볼까요?"라며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기타를 바꿔 든 그는 "1960년대 녹음했을 때 썼던 바로 그 기타"라며 '페이퍼백 라이터(Paperback writer)'를 들려줬다. 그는 공연 틈틈이 서툰 한국말로 "잘 하고 있나요?"라고 확인하며 관객과 소통하려 노력했다.

매카트니는 자신의 솔로 앨범 수록곡인 '뉴(New)'와 '퀴니 아이(Queenie eye)' 등을 부르며 전설에 머무르는 모습이 아닌 70대의 나이에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현재진행형 아티스트임을 확인시켜줬다. 비틀즈 멤버들을 위한 노래도 이어졌다. 그는 존 레논과 조지 해리슨을 위해 각각 '히얼 투데이(Here Today)'와 '섬싱(Something)'을 노래했다. '섬싱'은 조지 해리슨이 그의 아내를 위해 만든 곡이다. 노래를 마친 후 매카트니는 "이렇게 좋은 노래를 만든 조지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공연 시작부터 내리던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지만 객석의 반응은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

칭찬합니다!

용지 사용부터 친환경용지를 고집하는 EBS의 교육이념을 칭찬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이 있어서 칭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교재인 EBS 교재입니다. 친환경용지로 제작된 친환경 교재를 사용하면 우리 아이의 감성은 물론 환경뿐만 아니라 교재비도 저렴해져서 가계부담과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용지 1톤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45%, 대기오염 물질 74%를 줄일 수 있으며 하루 2,700톤 정도 폐지를 재활용하면 매일 30년생 소나무 43,000그루를 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톤 종이 수입에 따른 외화낭비를 막을 수 있고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GR인증을 받은 친환경용지로 만든 친환경 교재는 일반용지로 만든 일반교재보다 우리 아이들과 환경, 가계경제 그리고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욱 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후아유' 현실적·'앵그리맘' 설정 과장됐다 평가

KBS2 월화극 '후아유-학교 2015'와 MBC 수목극 '앵그리맘'이 학교 폭력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한다.

KBS2 월화극 '후아유-학교 2015'는 KBS 고유 브랜드 '학교 시리즈'의 여섯 번째 작품이다. 2015년 학교 현실에 미스터리라는 드라마적 요소를 더했다. 작품은 통영 누리고 왕따 이은비가 실종된 강남 명문 자사고 인기녀 고은별의 인생을 대신 살면서 시작된다. 기억을 잃은 채 학교로 돌아온 그가 진실을 찾는 과정을 통해 학교의 수많은 모습이 보여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 주 방송에선 말다툼은 물론 동성간 성추행까지 현시대의 학교 폭력이 적나라하게 등장했다. 백상훈 감독은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는 청춘들을 위해 작품을 기획했다"며 "과도한 설정보다는 현실적인 진짜 열여덟살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연출 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달리 MBC 수목극 '앵그리맘'은 학교를 사회의 축소판으로 설정, 학교 폭력을 보다 넓은 범위로 접근했다. 엘리트 사립고의 비리를 다룬다. 학생들은 어른들 권력놀이의 희생양이다. 고복동(지수)은 사회가 청소년 범죄에 관대하다는 이유로 폭행·살인 협박 혐의를 뒤집어 쓴 인물이다. 그의 뒤에는 재단 비리의 실장이자 교사 도정우(김태훈)가 있다. 작품은 학원물에 그치지 않고 권력자의 오만함을 조집는다.

그러나 한 고등학교 교사는 "10대가 저질렀다고 보기 힘든 학교 폭력이 종종 일어난다. 또 교내 문제가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시각도 틀리지 않다"며 "그러나 드라마는 학교를 비리, 폭력의 온상지로 묘사한다. 극적인 장면이 있어야 하는 게 드라마라지만 과하지 않게 표현됐으면 좋겠다"고 학교를 다룬 드라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진효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TV로 듣는 클래식 음악의 향연

◆ KBS1 윤건의 더 콘서트

오후 11시40분

메조 소프라노 양송미가 출연해 비제 오페라 '카르멘'의 매혹적인 아리아를 선보인다. 첼리스트 이정란은 무반주 첼로 모음곡 3번 프렐류드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첼로 선율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피아니스트 박종훈이 리스트의 '사랑의 꿈'을 연주하며 로맨틱한 피아니스트의 대명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 SBS 냄새를 보는 소녀

오후 10시

강력계장은 염미(윤진서)에게 왜 최무각(박유천)을 갑자기 수사에서 배제시킨 것인지 묻고, 그녀는 무각이 바코드 연쇄살인 피해자의 가족이기 때문이라 대답한다. 전현장(송종호)의 편지를 읽고 혼란스러운 오초림(신세경)은 오재희(정인기)를 찾아간다.

◆ MBC '황금어장 - 라디오스타'

오후 11시15분

연극 '술과 눈물과 지킬앤하이드'에 출연하는 정웅인, 최원영, 서현철과 절친 장현성이 출연한다. 오랜만에 연극 무대에 서는 정웅인과 최원영은 몸을 사리지 않고 망가지는 연기로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든다. 배우 서현철은 예상치 못한 입담을 선보인다.

◆ tvN 수요미식회

오후 9시40분

이번 편 메뉴는 설렁탕이다. 강용석·황교익은 한 설렁탕집을 '대한민국 설렁탕집의 대표주자'로 소개하며 열기를 지핀다. 도희가 게스트로 출연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설렁탕이라고 밝히고, 여수 출신인 그녀가 패널들에게 추천하는 여수 음식을 공개한다. /정다워·이유리기자 yu1@

※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일 (수)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사랑의 가족	1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10 생방송 투데이	00 뚝딱 보니 하다 05 코코몽 3 25 고녀 설록 류고 40 엄마 나랑 놀자	00 하늘 일어라 25 Rea Fun World 30 톡톡 송해[illegible] 50 Rea Fun World 55 시계마을 티키톡
19시	00 KBS 뉴스 7 30 위대한 한생	30 오늘부터 사랑해 (33회)	15 빛나거나 미치거나 (14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0회)	00 곤 30 EBS 뉴스 50 시선여시	00 시계마을 티키톡 25 내 친구 아시아 35 Rea Fun World 40 내 친구 아시아 50 두기 [illegible]
20시	25 당신만이 내 사랑 (9회)	30 한국인의 밥상 단박 55 비타민	55 압구정 백야 (142회)	00 SBS 8 뉴스 55 떴다 패밀리	40 다큐 학교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 Fun World 10 두기 [illegible] 45 스토리 50 공부의 왕도
21시	00 KBS 뉴스 9		30 휴먼스토리 논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5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illegible] 55 [illegible]	00 착하지 않은 여자들 (2회)	00 앵그리맘 (13회)	00 냄새를 보는 소녀 (11회)	45 극한 직업	00 [illegible]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윤건의 더 콘서트	15 [illegible]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illegible] TV연예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0 [illegible]	10 스포츠 [illegible]	35 MBC 뉴스 24 55 [illegible]	2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10 [illegible]	00 [illegible]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illegible] (75회)		10 [illegible] 4회			◆ 프로야구 후 7시 LG vs 두산 (SPO TV+, SPO TV) 삼성 vs 넥센 (KBS N SPORTS) KT vs 한화 (MBC SPORTS+, SBS SPORTS) SK vs 롯데 (SKY TV) KIA vs NC (MBC SPORTS+, SPO TV2) ◆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후 [illegible] 감바 오사카 vs 성남 (MBC, 네이버스포츠) 후 [illegible] 전북 vs 가시와 레이솔 (MBC, 네이버스포츠)
19시	40 연금복권 520 (20회) 55 JTBC 뉴스룸	40 [illegible]	30 식사를 합시다 2 (5회)	00 스마트 시티 [illegible]	40 [illegible]	
20시	50 JTBC 뉴스룸	40 강용석의 고소한 19 (113회)	40 식사를 합시다 2 (6회)	00 한국의 새 1부 [illegible]		
21시	40 [illegible]	40 수요미식회 (15회)		00 [illegible]		
22시			00 [illegible] 2015 (15회)	00 [illegible]	00 [illegible]	
23시	00 크라임씬 2 (5회)	00 고교처세왕 (2회)	00 2015 [illegible] (8회)	00 [illegible] 노르망디 고급 침투		
24시	4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스페셜 (8회)	00 강용석의 고소한 19 (113회)	00 오늘 뭐 먹지? (15회) 25 오늘 뭐 먹지? (8회)	00 [illegible] (3회)	20 [illegible]	

어린이날 잠실 더비, 3년째 두산 'V'

정근우 만루포 · 한화, KT에 15대8 대승

두산 베어스가 어린이날 LG 트윈스와의 '잠실 라이벌' 대결에서 완승했다.

두산은 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에서 민병헌의 2점포를 포함, 장단 13안타를 몰아치며 LG를 10-3으로 완파했다. 3년 연속 어린이날 라이벌전 승리다.

선취점은 LG에 빼앗겼지만 5회말 8점을 쓸어 담는 빅이닝을 만들면서 대승을 거뒀다. LG 선발 루카스가 볼넷 2개와 몸에 맞는 공 1개, 안타 1개를 내주고 폭투까지 범하면서 두산에 만루 기회를 제공하고 강판됐다. 두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수빈이 1타점 안타, 김재환이 2타점 안타, 김재호는 2타점 2루타를 날렸다. 이어 민병헌이 왼쪽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양의지도 1타점을 올리며 빅이닝을 장식했다.

두산 선발투수 유희관은 6이닝 6피안타 2볼넷 3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며 시즌 4승(1패)째를 올렸다.

NC 다이노스는 창원 마산구장에서 KIA 타이거즈를 상대로 노장 듀오 이호준과 손민한이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기분좋은 4연승을 달렸다.

이호준은 4타수 3안타로 공격을 주도하고 선발 손민한은 5이닝을 3안타 2실점(1자책)으로 막아 7-3으로 승리했다. NC는 KIA를 상대로 올시즌 4전 전승을 보이며 강세를 이어갔다.

넥센 히어로즈는 목동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9-4로 꺾고 4연승을 내달렸다.

승부처에서 내민 대타 카드가 적중했다. 넥센은 3-4로 뒤진 6회말 1사 만루에서 대타 윤석민이 1루수와 2루수 사이를 뚫는 2타점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했다.

염경엽 넥센 감독은 1사 1, 2루에서 또 대타 카드를 내밀었다. 김지수를 대신해 타석에 들어선 좌타자 고종욱은 삼성 사이드암 심창민의 시속 128㎞짜리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오른쪽 담을 훌쩍 넘어가는 3점 아치를 그렸다.

한화 이글스는 대전으로 KT 위즈를 불러들여 난타전 속에 15-8로 승리했다. 정근우는 2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장해 만루홈런을 포함해 5타수 4안타 4타점 4득점으로 그라운드를 휘젓고 팀 승리를 주도했다.

사직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홈런 6방이 터지며 SK의 11-4 승리로 끝났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한화 정근우가 5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5회말 역전 만루홈런을 때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윤빛가람 짜릿한 역전골

제주, 울산 잡고 2위

윤빛가람(사진)의 짜릿한 결승골로 제주 유나이티드가 울산 현대에 2-1 역전승을 거두고 2위로 뛰어올랐다.

제주는 5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9라운드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종료 직전에 터진 윤빛가람의 역전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제주는 전반 7분 프리킥 상황에서 울산의 제파로프에 선제점을 내주면서 0-1로 끌려갔다. 후반들의 설욕을 엮은 제주의 역전드라마는 후반 휘슬이 울린 직후부터 시작됐다.

강수일은 후반 1분 로페스가 페널티 지역 빈자역으로 찔러준 패스를 오른발로 골망을 흔들어 1-1을 만들었다. 이어 후반 43분 페널티지역 중간에서 로페스의 헤딩패스를 받은 윤빛가람이 가슴으로 공을 컨트롤한 뒤 침착하게 왼발로 마무리해 결승골을 뽑았다.

제주는 이날 승리로 승점 3점을 보태면서 4승3무2패(승점15점)가 돼 울산을 제치고 2위로 뛰어올랐다.

한편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에선 부산이 노행석과 한지호의 골을 묶어 포항을 2-1로 잡고 하위권 탈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김민준기자 mkim@

최고한 건강미인 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2015 제34회 미스터&미즈 인천선발대회 에서 여자 비키니 피트니스 부문 출전 선수들이 멋진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 60일짜리 DL 등재

맷 웨스트 영입 선발진 보강 이달 말 복귀 이상무

왼쪽 어깨 부상에서 회복 중인 메이저리거 류현진(28·LA다저스·사진)이 4일(현지시간) 60일짜리 부상자 명단(DL)에 올랐다.

다저스 구단은 류현진을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서 60일짜리 부상자 명단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보통 15일짜리 부상자에 오른 선수는 현재 경기에 출전하는 25인 로스터에서는 빠지나 언제든 불러올릴 수 있는 40인 로스터에는 포함된다. 6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 40인 로스터에서도 빠진다.

결국 다저스는 다른 선수를 40인 로스터에 올리고자 류현진을 잠시 60일짜리 부상자명단으로 옮겼다. 이날 다저스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방출된 우완투수 맷 웨스트를 현금 트레이드로 영입했다. 웨스트는 류현진의 이동으로 빈 40인 로스터에 합류할 예정이다.

MLB닷컴은 류현진의 재활에 차질이 없다는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의 말을 곁들이면서 류현진이 로스앤젤레스에 남아 재활치료를 받기로 한 사실은 재활과정에 큰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했다.

재활이 순조로울 경우 류현진의 복귀 시기는 이달 말이다. 60일짜리 부상자명단 등재 시기는 3월 27일로 소급 적용하면 류현진은 이달 26일께 빅리그에 올라올 수 있다.

/김민준기자 mkim@

추신수 타격감 업 '5월의 타자'

4경기 연속 2루타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4경기 연속 장타를 터뜨리며 타격감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5일(한국시간) 미국 휴스턴의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에서 2루타 한 방을 터뜨리며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 연속 2루타를 터뜨리며 타격감을 한껏 끌어올린 추신수는 시즌 타율 0.147이 됐다. 특히 5월 들어 최근 4경기에서 16타수 5안타로 타율 0.313을 기록했다. 5안타는 홈런 한 방과 2루타 4개로 모두 장타였다. 텍사스는 2-1의 짜릿한 승리를 챙겼다.

/김민준기자

'론스타 ISD 소송' 재판장, 4년 전 론스타 사건 관여

英 출신 '비더'… 캐스팅보트권한 가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또다시 론스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인물이 재판장에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재 판정은 국내 법원 판결로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출신의 중재인 비더(V.V. Veeder)씨는 2013년 5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중재 재판부 재판장으로 선임됐다. 재판장은 재판부 3명 중 나머지 2명의 의견이 엇갈릴 때 캐스팅보트 권한을 갖는다. 선임 당시 정부는 비더씨가 국제중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비더씨는 2009~2011년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에서 진행된 론스타 관련 중재 판정에 참여한 바 있다. LSF-KDIC 투자사가 KRNC를 상대로 낸 중재 사건이었다. KRNC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이고 LSF-KDIC 투자사는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 론스타와 KRNC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전문 법인이다.

/연합뉴스

이사회를 통해 LSF-KDIC 투자사 경영권을 장악한 론스타는 일방적으로 부지를 매각한 뒤 관련 비용을 KRNC에 청구했고 비용 정산에 합의하지 못하자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비더씨는 KRNC 지명으로 ICC 중재 재판부에 속했다. 재판장은 독일 출신의 삭스(K.M Sachs)씨가 맡았다. 재판부 내부 의견은 공개되지 않아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알 수 없다.

당시 재판부는 KRNC가 LSF-KDIC 투자사에 부지 매각 비용 50%, 변호사 비용, 중재인 보수와 경비 등 수백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론스타 측에 유리한 결론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판정은 국내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1심은 "중재판정을 인정하면 그 구체적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라며 LSF-KDIC 투자사의 집행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중재판정 자체의 하자 등을 이유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LSF-KDIC 투자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재까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외국의 상사 중재 판정은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반면 사건 정부가 사건 당사자인 ISD는 한 차례 상소만 허용되고 확정되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

/연다인기자 anton@metroseoul.co.kr

무상급식 촉구하는 거제 학부모와 어린이들 5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 보조운동장에서 열린 '거제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에 참가한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무상급식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외국계 기업 팀장 사칭 '카사노바' 구속

자신을 외국계 기업 팀장이라고 속이며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뜯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1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A(29)씨 등 여성 3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9월 스마트폰 앱에서 알게 된 A씨와 사귀면서 자신을 미국 명문대 졸업생이고 외국계 기업 영업팀장이라고 속였다. 이씨는 "회대비와 사업비가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28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연인 사이가 된 B(36·여)씨에게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는 거짓말로 B씨의 신용카드를 빌려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쓰고 갚지 않았다.

이씨는 B씨의 친구를 자신의 대학 선배와 만나게 해주자며 B씨에게 말하면서도 막상 소개팅 자리에는 자신이 나가 C(36·여)씨를 새로 사귀기도 했다. 이씨는 C씨에게도 1000만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중학교 시절 미국에 이민한 뒤 대학을 중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통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는 등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미국 사정에도 밝아 피해 여성들로부터 의심을 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승현기자

홍준표 최측근 '자금담당 보좌관' 검찰 출석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나경범(50)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을 5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나 본부장은 홍 지사의 최측근 인사로 2001년부터 오랜 기간 홍 지사의 보좌관을 지냈다.

특히 나 본부장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한 언론인터뷰에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점인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홍 지사의 캠프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 본부장을 상대로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홍 지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캠프 운영자금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는지, 실제 윤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어 검찰은 나 본부장과 더불어 홍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 1~2명을 더 조사한 후 이번 주 내 홍 지사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승현기자

2017학년도 전문대입시 수시 84%↑

2017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의 비중이 84%를 넘어선다.

취업 역량에 필요한 소질과 적성, 인성을 주로 평가하는 비교과 입학전형도 대폭 확대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37개 전문대학의 201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5일 발표했다.

2017학년도 총 모집인원은 21만4857명으로 지난해 21만9180명보다 2%(4323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모집인원인 22만685명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5%(1만1228명)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전문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구조 조정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은 18만869명(84.2%), 정시모집은 3만3988명(15.8%)이다. 수시모집 비중이 2016학년도보다 1.0%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최근 발표된 2017학년도 4년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수시모집이 65.9%를 기록한 데 이어 전문대 입시에서도 수시모집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흐름이다.

반면 정시모집에서는 일반전형이 2만1891명(64.4%)으로 집계됐다. 전형 방법과 관련해선 '비교과 입학전형'이 5464명(38개교)으로 2016학년도 1845명(21개교)에서 196%나 증가한다.

비교과 입학전형은 입시부터 취업과 연계한 '맞춤형 전형'으로 학업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 평가시 산업체 인사가 참여한다. 학업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직업 교육이 적성에 맞으면 전문대에 들어갈 길이 넓어지는 것이다.

또 입학 전형요소를 살펴보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가 71.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면접 위주가 8.8%이며 수능 위주 8.2%를 각각 기록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가 81.6%나 되고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가 51.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학년도부터 수능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는 19개교에서 가산점 부여 등의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전문대에 들어갈 기회도 확대된다.

2017학년도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7665명(109개교)으로 전년도 6873명(102개교)보다 792명 증가한다.

농어촌 출신, 저소득층, 사회·지역 배려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입학전형 외 모집인원은 총 1만4112명이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1334명(17개교)이 선발되며 성인 재직자와 만학도를 위한 특별전형으로 5293명(93개교)이 전문대에 입학한다.

이밖에 4년제 간호학과는 66개 대학에서 1만1784명을 선발하고 안전관리 인력양성 학과는 2016학년도 대비 202명 늘어난 3817명을 뽑는다.

수시모집 1차 접수기간은 다음해 9월3~29일, 2차는 11월9~21일이다. 정시모집은 1차가 2017년 1월3~13일, 2차가 2월10~14일이다.

/이홍원기자 hvvn@